KSP 공식홈페이지
www.ksp.go.kr

Knowledge Sharing Program

2021 KSP
연차보고서

Knowledge
Sharing
Program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KDI 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지식공유사업이다.

이를 통해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하여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목차

「2021년 KSP 연차보고서」는 2020년에 착수하여 2021년에 완료된
2020/21 KSP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소개

06 사업 개요
08 협력국 및 협력 국제기구
10 사업 현황

하이라이트

14 KSP 동향
15 2020/21 KSP 추진 현황

2020/21 KSP 주요 자문 사업 소개

18 **포용**
19 파라과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
21 모잠비크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비 역량강화 방안
23 메콩강위원회 홍수·가뭄 관리 및 예·경보 개선 방안
25 **상생**
26 파키스탄 중소기업 발전 및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 방안
28 케냐 나이로비 대도시권 교통관리센터의 통합운영 방안
30 [IDB] 온두라스 라세이바시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 수립
32 **혁신**
33 세르비아 세무행정 체계화를 통한 조세정책 역량 강화
35 콜롬비아 중소기업 혁신정책 수립 및 이행 방안
37 이집트 전자공학분야 과학기술단지(STPERI) 운영 전략 수립
39 **파트너십**
40 2021 성과공유 콘퍼런스 및 아프리카 지역 세미나

2020/21 KSP 연구 사업 소개

46 지역연구: 인도, 태국, 케냐
48 동향연구 '신남방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49 협력국 기초분석 조사
50 협력국 전자정부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KSP 사업 개선방안 연구

부록

54 KSP 고도화 전략 요약
56 2020/21 KSP 사업 목록
58 주요 연혁

KNOWLEDGE
SHARING
PROGRAM

01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소개

- 사업 개요
- 협력국 및 협력 국제기구
- 사업 현황

사업 개요

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은 지난 70년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나아가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지식공유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총 87개국을 대상으로 1,300여 개 주제에 관해 정책자문을 제공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총괄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KSP는 협력대상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고 전개되었으며, 고도성장기 한국의 정책 추진 경험을 일방적으로 소개하기보다는 각국의 경제·사회 환경을 진단하고 그에 걸맞은 최적의 대안을 공동으로 찾아내는 상호학습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 제안의 적합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효과적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개발도상국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계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KSP는 개도국이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평가를 받는다.

KSP는 한국 정부의 대외 경제정책 및 외교정책과 연계해 양국이 호혜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협력관계(파트너십) 구축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협력국의 정책과 제도, 시장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KSP를 계기로 양국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교역 조건과 투자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식공유와 경제협력 간 선순환을 꾀하고 있다.

한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체제에서는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투자의 중요성이 폭넓게 인식되고 있고, 공공재원 투입의 타당성 확보 차원에서도 자국에 이익이 되는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KSP는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멕시코, 헝가리, 콜롬비아, 칠레 등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고소득 국가와도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추진되었다.

KSP는 경제, 사회, 공공 부문(산업·무역, 과학기술, 거시경제 및 금융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자문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 수요와 한국의 비교 우위, 협력국의 발전 단계를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고, 공동연구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안하며, 정책자문과 역량강화연수 기회를 제공해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지원하고 있다. KSP는 사업 방식에 따라 한국과 협력국 정부 간(G2G) 사업인 양자 정책자문사업과 다자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의 기술협력사업을 연계해 삼각협력 방식으로 지원하는 국제기구 공동컨설팅 사업으로 구분된다.

사업 단계 및 일정

기획

N - 2 년

- 7월 - 10월: 사업 제안서 접수
- 11월 - 2월: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전문가 검토

N - 1 년

- 3월 - 6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시행 계획 확정
- 7월 - 11월: 사업 예산 승인

수행

N 년

- 3월 - 5월: 사업 총괄 기관선정
- 8월 - 10월: 사업 수행 기관 선정 및 연구진 구성
- 6월 - 8월: 사전 협의
- 10월 - 12월: 착수보고회 및 실태 조사

N + 1 년

- 1월 - 2월: 현지세미나 및 세부 실태조사
- 6월 - 8월: 최종보고회 및 고위 정책 대화
- 3월 - 5월: 중간보고회 및 정책 실무자 연수
- 8월 - 9월: 성과 공유 콘퍼런스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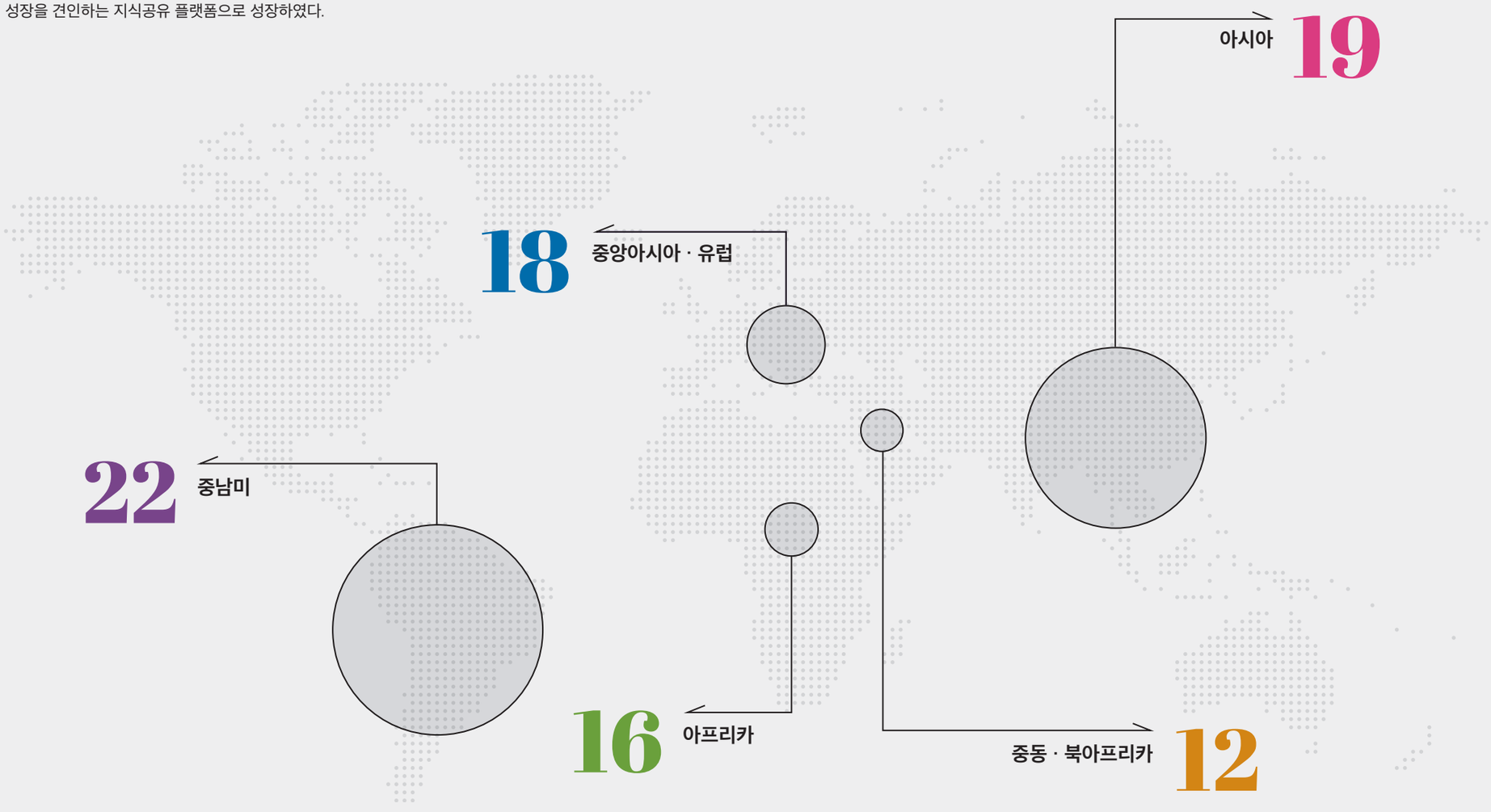
N + 1 년 이후

- 추적 평가: 성과 모니터링
- 후속 사업 연계 지원

※ 상황에 따라 추진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협력국 및 협력 국제기구

2004년에 시작된 KSP는 2021년까지 87개 협력국,
11개 국제기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지식공유 플랫폼으로 성장하였다.



아시아

- 동티모르
- 라오스
- 말레이시아
- 메콩강위원회(MRC)
- 몽골
- 미얀마
- 방글라데시
- 베트남
- 부탄
- 스리랑카
-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 인도
- 인도네시아
- 중국
- 캄보디아
- 태국
- 태평양도서국포럼(PIF)
- 파키스탄
- 필리핀

아프리카

- 가나
- 가봉
- 나이지리아
- 남수단
- 남아프리카공화국
- 르완다
- 모잠비크민주공화국
- 아프리카 과학기술 파트너십(PASET)
- 앙골라
- 에티오피아
- 우간다
- 적도기니
- 케냐
- 콩고
- 탄자니아
- 토고

중남미

- 과테말라
- 니카라과
- 도미니카공화국
- 멕시코
- 바베이도스
- 벨리즈
- 볼리비아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아이티
- 에콰도르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우루과이
- 자메이카
- 칠레
-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 쿠바
- 파나마
- 파라과이
- 페루

중동 · 북아프리카

- 리비아
- 모로코
- 사우디아라비아
- 아랍에미리트
- 알제리
- 오만
- 요르단
- 이라크
- 이란
- 이집트
- 쿠웨이트
- 튀니지

중앙아시아 · 유럽

- 러시아
- 루마니아
- 몰도바
- 벨라루스
- 불가리아
- 비세그라드그룹(V4)
- 세르비아
-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 알바니아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조지아
- 카자흐스탄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 튀르키예
- 헝가리

국제기구 파트너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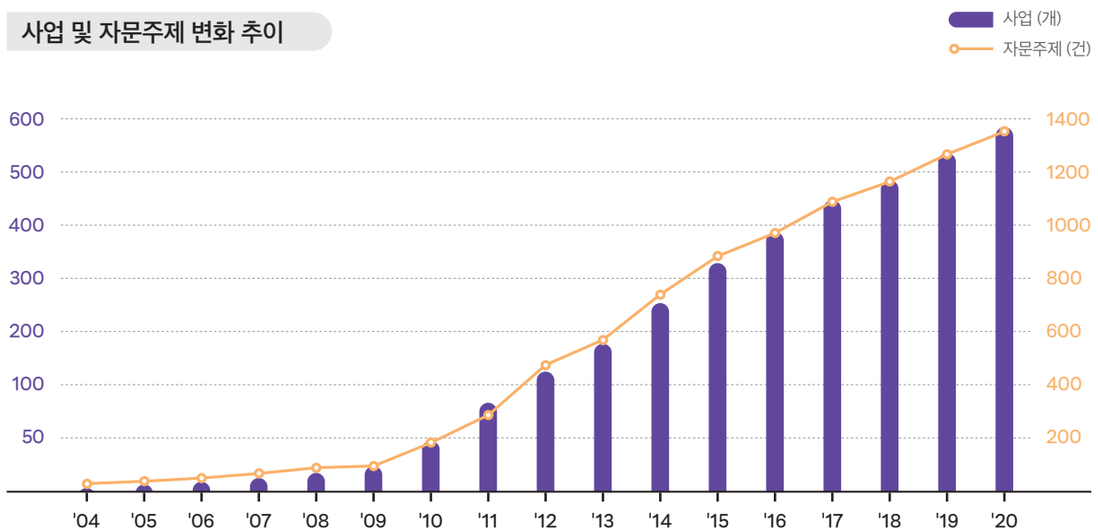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국제무역센터 (ITC) | 글로벌녹색성장기구 (GGGI) | 미주개발은행 (IDB) | 세계은행 (WB) | 아시아개발은행 (ADB) |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 유엔 아태정보통신기술 교육센터(UN-APCICT) | 중남미개발은행 (CAF) | 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 가나다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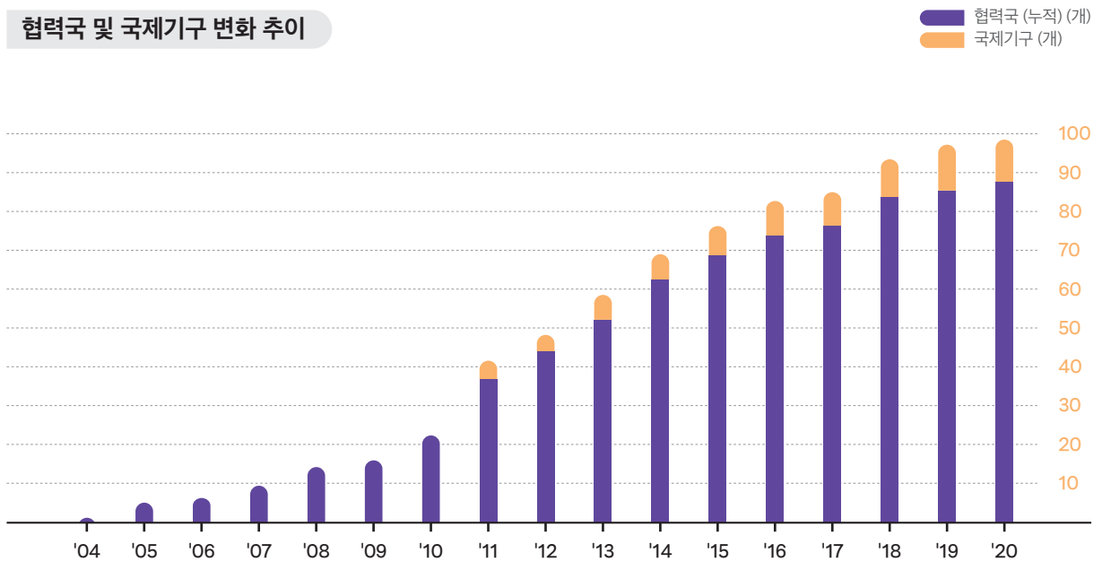
사업 현황

2004-2021

사업 및 자문주제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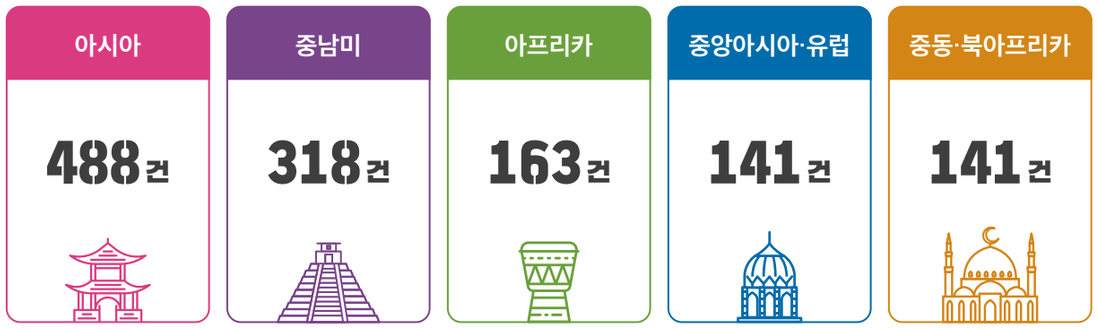


협력국 및 국제기구 변화 추이



※ KSP는 2015년부터 2개 년도에 걸쳐 실시됨. 따라서 그래프 가로축 연도 중 2015~2020년은 사업 시작 연도를 의미(예: 2020 → 2020/21 KSP)

지역별 자문수



지역별 KSP 최다 시행국가



KNOWLEDGE
SHARING
PROGRAM

02

하이라이트

- KSP 동향
- 2020/21 KSP 추진 현황

KSP 동향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6.1%)이 전년 대비 9% 상승하는 등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고 있다. 세계는 경제·사회 회복력을 강화하고, 전 지구적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보건의료 체계의 한계와 기후위기로 촉발된 재난 위험 증가, 경제·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노후 인프라 및 기업 경쟁력 약화, 디지털 활용 역량 및 인프라 부족에 따른 디지털 불평등 심화 등의 다양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20/21 KSP는 협력국 수요변화에 따라 중장기적 성장 기제를 확보하기 위한 예방적 노력 차원의 정책자문을 다수 실시하였다. 또한 대면, 비대면 협력 방식의 조화를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강조했던 전년도 KSP와 달리, 2020/21 KSP는 협력국의 KSP 활용도 제고와 후속사업 연계를 통한 성과 확산을 위해 실태조사 방식의 다변화와 지속적인 고위급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방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관련하여 이번 연차보고서는 2020/21 KSP 사업 중 협력국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속시키기 위한 "포용",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 구축 및 균형 잡힌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생", 분야별 생산성 제고의 기초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을 주제로 대표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국내외 개발협력 관계자와 KSP 성과 공유를 통한 협력체계 고도화를 위한 "파트너십"으로 성과 공유 콘퍼런스를 담았다. 이 밖에 사업 발굴 및 기획, 운영 체계화를 위한 KSP 추진전략 연구인 지역연구(인도, 태국, 케냐), 동향연구('신남방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협력국 기초분석 조사, 전자정부 KSP 사업 개선방안 연구를 함께 보여주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내외 환경 변화와 다양한 사업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SP를 'K-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상생형 지식공유 플랫폼'으로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KSP 고도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KSP의 과거와 현재,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협력국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한-협력국 간 경제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3대 추진방향과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총괄기관들은 KSP 고도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지식공유를 통한 협력국의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협력 강화를 선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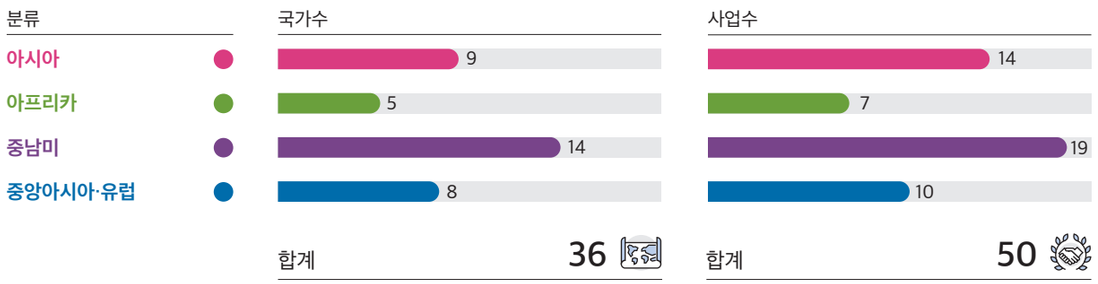
KSP 사업신청 안내 영상

KSP 사업신청서 작성 안내 영상



2020/21 KSP 추진 현황

지역별 협력국 현황



※ 2020/21 KSP 전체 사업 목록은 56쪽에서 확인

정책 분야별 사업 현황



KNOWLEDGE
SHARING
PROGRAM

03

2020/21 KSP
주요 자문 사업 소개

- 포용
- 상생
- 혁신
- 파트너십



포용

파라과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

모잠비크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비 역량강화 방안

메콩강위원회 홍수·가뭄 관리 및 예·경보 개선 방안

파라과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

파라과이 Paraguay





수 도 **아순시온** (Asunción) 면 적 **39만 7,300 ㎢** (한반도의 약 1.8배)

인 구 **713** 만 명 1인당 GDP **5,001** 달러

협력부처 **공공보건사회복지부** (Ministry of Public Health and Social Welfare)

2020년 기준,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

자문 주제	• 파라과이 감염병 방역 네트워크 통합 및 연계, 보건의료 체계 강화, 파라과이 맞춤형 방역시스템 구축 방안
유관 한국경험	• 2015년 메르스 이후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한 후, 코로나19에 적절한 대응을 시행한 국가로 평가되었으며, K-방역으로 통칭되는 방역 거버넌스를 수립 •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2021), 24시간 기능하는 긴급상황실 운영(2020),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투입 가능한 즉각대응팀 운영(2020) 등 국가방역체계 강화, 전국 모든 시·도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운영(2020), 역학조사관의 확충(2015) • K-방역 3T(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추진 전략 제시(2020) *K-방역 3T : 감염병 여부를 검사(Test)하고, 감염병 환자를 치료(Treat)하는 동시에 감염병 확산 경로를 추적(Trace)하는 방식

관련 대외정책: 코로나19 대응 | **SDG:** 목표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총괄기관: 한국수출입은행(KEXIM) | **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사업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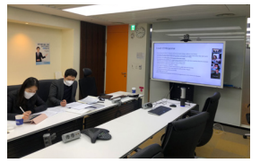
파라과이는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강력한 봉쇄정책을 실시하여 주변 인접국들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상황을 유지하였으나, 팬데믹이 장기화함에 따라 전문 의료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방역에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확진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전문 의료인력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검체 채취 및 검사 가능 숙련 인력이 부족하고, 대부분 병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별 의료격차가 심각했다. 이와 더불어 경제성장 둔화, 민생경제 불안, 실업률 증가 등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였다. 이에 파라과이 정부는 한국의 방역시스템 구축 경험을 공유받고 효과적·체계적 공중보건 및 감염병 대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KSP 사업을 요청하였다.

사업 목표 및 자문 내용

본 사업은 한국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경험 공유를 통한 파라과이의 효과적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및 방역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연구진은 파라과이 공중보건 역량 제고 및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공공보건사회복지부의 중장기 감염병 계획 수립을 자문하였다. 특히 파라과이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검사, 역학조사관 훈련, 자원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등 단기 시행방안·계획뿐 아니라 파라과이 국립보건원 기능 강화 등 중·장기 발전방안도 자문하였다.

추진 내용

당초 파라과이를 직접 방문하거나 초청 연수를 기획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활동으로 사업이 대체 실시되었다. 온라인 착수보고회(2021.01.29.)에서 **훌리오 다니엘 마쏘레니(Julio Daniel Mazzoleni) 보건부 장관** 등 협력국 주요 인사 25인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은 사업 범위를 협의한 후 사업을 시작하였다. 실태조사는 한국 연구진의 현지 방문 대신 사업수행기관(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현지 지부인 '연세글로벌헬스센터 아순시온 지부'를 통해 실시하였다. 정책실무자 연수에서 국립보건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1) 온라인정책세미나(2021.08.13.), 2) 이행계획 보고회(2021.08.20)를 개최하였다. 이행계획 보고회에서 국립보건원은 인수공통감염병 감시계획, 항생제 관리, 감염병 미생물 실험실 강화 및 신종 감염병 전문 대응팀 구성 계획 수립을 위한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한국 전문가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마찬가지로 비대면 회의로 진행된 최종보고회(2021.09.10.)에 **리다 소사(Lida Sosa) 보건부 차관** 등 26인의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KSP 최종 정책제언을 발표하였다. 이때 파라과이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운영에 차질이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화상회의, 영상 강의 등 대체 활동을 통한 유연한 대처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사업을 성공리에 완료한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


착수보고회(2021.01.29.)


이행계획 보고회(2021.08.20.)


최종보고회(2021.09.10.)

시사점

본 사업의 정책제언 및 현황 분석 자료는 파라과이 실정에 맞는 맞춤형 방역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파라과이 보건부가 직접 우선순위 과업과 실행계획을 작성함으로써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단초를 마련하였으며, 감염병 대응센터 건립, 지방 보건연구소 설립, 약물 통제관리 센터 설립 등의 후속 사업을 추진할 경우 파라과이 전반적인 공공보건 기능 강화 및 관계자의 역량 제고를 통한 사회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잠정 성과

협력대상국 역량 강화
- 파라과이 정부의 각종 감염·질환 통제 및 보건 역량 강화에 기여

개발협력 촉진
- 파라과이 정부가 한국 측 제안 EDCF 인프라 사업안(감염병 대응센터 건립 등) 검토 중

KSP 최종보고서

모잠비크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비 역량강화 방안

모잠비크 Mozambique





수 도 **마푸투** (Maputo)
면 적 **77만 880 ㎢** (한반도의 약 3.5배)
인 구 **3,126** 만 명
1인당 GDP **449** 달러
협력부처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2020년 기준,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

자문 주제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체계, 감염병 관리체계, 보건부의 감염병 역학 조사 체계
유관 한국경험	•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권역 질병대응센터 5개소, 전국 모든 시·도 지역방역대책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보건환경연구원(병원체 검사), 감염병관리지원단(시·도 방역 기술지원), 의료기관(환자 진단 및 치료)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방역 관리 체계 구축 • IT를 이용한 모니터링 및 역학조사: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Support System) 도입 • 생활치료센터 마련: 경증 환자의 생활 및 의료 지원을 위해 전담 의료진이 상주하는 전국 63개소 생활치료센터 운영(2021.07월 기준) • 접경지역 관리: 공항 출입국 검역절차 강화 및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System) 운영

관련 대외정책: 코로나19 대응 | **SDG:** 목표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총괄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수행기관:**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사업 추진 배경

모잠비크 정부는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규모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초 연일 500~900명의 확진자 발생, 테스트 양성률 30%, 변이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유입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혔다. 병상 및 산소 부족, 의료종사자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의 부족 등 의료계 수용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더운 날씨가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한다", "코로나19는 정부가 만든 생화학 무기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방역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모잠비크 보건부는 한국의 보건·방역 대응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감염병 진단, 추적, 치료 등 보건·방역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해 KSP 사업을 요청하였다.

사업 목표 및 자문 내용

본 사업은 감염병 진단, 추적, 치료 등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목표하였다. 단순히 한국의 경험을 전수하기보다는 모잠비크의 보건의료 현황(인프라 및 인력, 기초 보건 시스템 등)을 면밀히 진단하여 의료기관 감염병 관리 지침 마련, 국가 차원의 감염병 관리 인식 개선과 루머 대응, IT를 이용한 모니터링 및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 마련, 접경지역 관리 등 모잠비크 맞춤형 정책 자문을 실시하였다. 모잠비크의 휴대전화 보급률이 40%, 인터넷 보급률이 10%라는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 ICT 활용 방안 등 모잠비크 정부가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추진 내용

온라인 착수보고회(2021.04.15.)를 개최하여 **일레시 야니(Ilesh Jani) 모잠비크 국립보건원장, 로사 마를렌(Rosa Marlene) 보건부 공공보건국장** 등 모잠비크 주요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소개하고 세부 자문 범위를 확정하였다. 양측은 한국의 과거 사스, 메르스 등의 전염병 관리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모잠비크에 적절한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실태조사(2021.05.~06.)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고려하여 현지 방문 대신 모잠비크 보건부 및 유관기관과의 화상회의, 서면 조사, 현지 전문가 활용 등 대체방안을 통해 6주간 실시되었다. 이때 기관별 코로나19 대응현황과 함께 감염병 관리를 위한 사업장 관리지침, 개인위생 및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조사하고 주간 리포트를 작성하였다. 매주 키워드 문헌 연구(1주), 코로나19 특별 조치에 따른 방역 현황(2주), 보건부 서면질의(3주), 감시 매뉴얼 검토(4주), 감염물질 포장 등 품질시스템 관련 문헌 연구(5주), 모잠비크의 정치·법제 등 환경 분석(6주) 등 모잠비크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주요 이슈를 분석하였다.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2021.06.24.)는 보건부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으며, **루이사 빤게네(Luisa Panguene) 보건부 보건의료국장**을 포함한 보건부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온라인 최종보고회(2021.10.01.)에서 양측은 KSP 정책제언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때 루이사 빤게네 보건부 국장은 모잠비크의 의료보건시스템을 강화하고 한국과의 보건·방역 협력 기회를 제공한 KSP에 감사함을 표하고, 앞으로 보건방역 분야 협력 확대를 희망하였다.



착수보고회(2021.04.15.)


실태조사(2021.05.~06.)


최종보고회(2021.10.01.)

시사점

본 사업은 한국 경험을 토대로 모잠비크의 보건방역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제언을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모잠비크 정부에 있어서 중요한 접경지역 관리를 위해 현지 여건에 맞는 생활센터 운영, ICT 기반 보건·의료 관리 방안 자문으로써 모잠비크 국민을 위해 공중보건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 기업이 모잠비크 보건부 산하 관리 벤더에 진단키트 제품을 수출하는 등 한국 의료 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양국 경제협력 기반 강화에 기여하였다.

잠정 성과

민간 경제협력 촉진

- 국내 진단키트 제조사인 PCL이 모잠비크 보건부의 소속 벤더인 K사에 진단키트를 5,000회분 초도계약 수출 달성(약 1천 달러)하고, 사업 종료 이후 한국 제품 신뢰도 상승으로 7,600달러 추가 계약 체결

KSP 최종보고서

메콩강위원회 홍수·가뭄 관리 및 예·경보 개선 방안

메콩강위원회 Mekong River Commission



사무국 **라오스 비엔티엔** (Vientiane) 설립연도 **1995** 년

회원국 (1인당 GDP) **라오스** (2,630달러) **베트남** (2,786달러) **캄보디아** (1,544달러) **태국** (7,187달러)

메콩강 하류유역 면적 **795만** km²

2020년 기준,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 메콩강위원회

자문 주제	• 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의 통합 홍수 및 가뭄 관리 경험 및 시사점 •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홍수 예측 기술 • MRC 홍수 및 가뭄 예·경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 메콩강 지역 통합 홍수 및 가뭄 관리 전략
유관 한국경험	• 한국은 2018년부터 환경부를 중심으로 통합홍수 및 가뭄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IoT 및 AI를 활용한 홍수예보 시스템으로 2025년까지 전환할 예정
메콩강위원회	• 지속가능한 메콩강 개발과 역내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메콩강 하류 유역 4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이 출범한 국제기구로, 메콩강 유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국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수자원 외교(water diplomacy)와 지식 공유의 장으로 역할 * 국별 수자원·환경 주관부처의 장관으로 구성된 의회(Council), 국장급 이상 인사로 구성된 국가메콩위원회(National Mekong Committee, NMC), 메콩강위원회 사무국(라오스 소재)으로 구성

관련 대외정책: 신남방 정책 / 과학기술·ICT(디지털 뉴딜 포함) ODA / 그린 뉴딜 ODA / 정상외교 후속 조치 해당(대외정책명: 한-메콩 정상회담, 2019.11.) / 기타: 2021년 한-메콩 협력 10주년 | **SDG:**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총괄·수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 추진 배경

메콩강 하류유역(Lower Mekong Basin, LMB)은 인근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의 농업, 임업, 어업의 기반이 되는 자원의 보고이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때문에 연평균 6~7천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유역국은 1995년 메콩협약(Mekong Agreement)에 따라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MRC)를 출범하여 국제공유하천인 메콩강의 이용과 개발을 위한 협력메커니즘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낮은 예측 정확도, 실효성 있는 경보 방법의 부재, 수문기상 자료 부족, 현안에 대한 회원국 간 합의 도출 및 각국 정책 조율의 어려움 등 다양한 기술적·정책적 요인으로 홍수·가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MRC 사무국은 국별로 관리되고 있는 홍수·가뭄 관리 시스템을 사무국으로 일원화하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여 예·경보를 적시에 실시함으로써 홍수 및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SP 사업을 요청하였다.

사업 목표 및 자문 내용

본 사업은 MRC 회원국의 홍수 예·경보 시스템 및 가뭄 예보 기술수준을 파악하고, 한국의 선진 홍수 및 가뭄 예·경보 기술, 홍수 및 가뭄 관리 경험을 토대로 메콩강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하였다. LMB의 효율적인 홍수·가뭄 예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개국의 홍수 및 가뭄 관리 현황, 한국의 통합 물관리 및 가뭄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메콩강 지역 통합 홍수 및 가뭄 관리 전략을 자문하였다. 또한, LMB의 홍수 및 가뭄 예측의 효과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AI 및 빅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의 활용 방안과 MRC와 회원국 간에 홍수 및 예·경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진 내용

본 사업은 약 6개월에 걸친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안 피치 핫다(An Pich Hatda) MRC 사무국 대표**를 비롯한 국별 주요 관계자를 대상으로 착수보고회(2021.02.02.)를 실시하였다. 한국 연구진은 현지 세미나 및 세부 실태조사(2021.04.28.~06.11.)로 한국의 홍수·가뭄 관리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 전문가와 함께 MRC의 홍수 및 가뭄 데이터 수집 현황 및 방법을 조사하였다. 온라인 중간보고회(2021.05.18.)에 안 피치 핫다 사무국 대표를 포함한 MRC 주요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는 등,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MRC의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MRC 사무국 요청에 따라 방한 정책실무자연수는 ① 한국의 통합 물관리 및 가뭄관리 경험, ② 한국 민간기업의 홍수 예·경보 시스템에 관한 강의 영상으로 대체하였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최종보고회(2021.07.26.) 및 고위정책대화(2021.09.06.)에서 안 피치 핫다 사무국 대표 및 **아눌락 키티쿤(Anoulak Kittikhoun) MRC 사무국 최고위원**은 KSP 정책제언이 향후 수립될 MRC 유역 개발전략(Basin Development Strategy)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하며,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은 LMB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하였다.



착수보고회(2021.02.02.)



정책실무자연수 - 한국의 통합 물관리 및 가뭄 관리 경험



최종보고회(2021.07.26.)

시사점

본 사업은 홍수 및 가뭄관리를 위한 범국가 하천 이슈(transboundary issue)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유역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였다. KSP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2022년에 한-아세안재난장관회의(한국 행정안전부 주관)가 설립되고,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아세안 지역의 홍수·가뭄 관리 예·경보 개선 방안에 대한 2022/23 KSP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다양한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 민간기업의 메콩강유역국 진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였다. 동 사업은 한국-MRC의 첫 협력사업인 2017/18 KSP 사업('지속가능한 수력 발전을 위한 메콩유역통합관리 전략')의 후속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KSP 사업을 계기로 MRC는 한국수자원공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다양한 한국 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MRC와의 상호호혜적인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잠정 성과

개발협력 촉진
- 2022/23년도 KSP 사업으로 연계('메콩강위원회 빅데이터·AI 기반의 홍수 및 가뭄관리 개선 방안')
- 한-아세안 재난장관회의(장관급 회의) 신설(2022년 개최 예정) 기여

KSP 최종보고서

상생

파키스탄 중소기업 발전 및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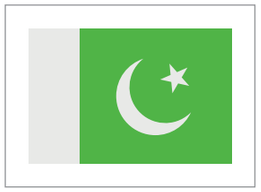
케냐 나이로비 대도시권 교통관리센터의 통합운영 방안

[IDB] 온두라스 라세이바시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 수립

파키스탄 중소기업 발전 및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 방안

파키스탄 Pakistan





수 도 이슬라마바드 (Islamabad) 면 적 77만 880 ㎢ (한반도의 약 3.4배)

인 구 2억 2,089 만 명 1인당 GDP 1,189 달러

협력부처 중소기업개발청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 Authority)

2020년 기준,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

자문 주제	• 대-중소기업 협업 방안: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로드맵, 중소기업의 GVC 편입 촉진 방안, 3개 산업(섬유 및 의복, 백색가전, 수술기기) 경쟁력 제고 방안 • 파키스탄 자동차 국산화 정책: 기업 지원, 기술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유관 한국경험	한국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수출 촉진에 힘썼으며, 1990년대 초 WTO 출범과 함께 해외 마케팅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고 후반에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함. 현재 글로벌 벨류체인(Global Value Chain, GVC)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해외 진출을 지원 중 • 대-중소기업/중소기업 간 협력(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사업, 수출컨소시엄 사업) • 해외기업 매칭 및 협력 기회 제공(글로벌 파트너링사업,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 온라인 B2B 거래 지원(Gobiz KOREA) • 글로벌 역량강화(해외 상담회/전시회, 해외인증, 기술거래 등 지원 사업)

관련 대외정책: 과학기술·ICT(디지털 뉴딜 포함) ODA | **SDG:** 목표 8.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총괄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수행기관:** 현대경제연구원

사업 추진 배경

파키스탄의 내실 있는 경제 성장과 대외부채 축소를 위해서 농업 등 1차 산업 위주의 저부가가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제조업 육성을 통한 중소기업의 GVC 진입 확대가 필수이다. 파키스탄의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320만 개사),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낮은 품질, 표준 부재, 장비 노후화, 인적자원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파키스탄 정부는 6대 정책 중 하나인 '경제 성장'의 주요 과제로 중소기업 육성을 제시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재정비하거나 파키스탄 중소기업개발청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개발청은 파키스탄 제조업의 20%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 사례 및 지원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자국 중소기업 발전 및 GVC 편입을 지원하고자 KSP 사업을 요청하였다.

사업 목표 및 자문 내용

본 사업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 정책 수립·이행 경험을 파키스탄과 공유하고, 파키스탄 중소기업의 GVC 편입 방안 자문을 통해 중소기업 자립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파키스탄과 한국의 대-중소기업 협력 성공 및 실패 사례, 중소기업 생태계 구축 경험을 토대로 파키스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로드맵, 파키스탄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촉진방안(기술 투자유치, 가격정책, 수출지원 프로그램), 기술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자문하였다. 이와 더불어 파키스탄 자동차 산업 현황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함께 분석하여 파키스탄 자동차 국산화 정책을 위한 지원 방안(기업 지원,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우수 인력 양성)을 다루었다.

추진 내용

온라인 착수보고회(2020.11.17.)를 개최하여 연구진들의 사업 계획을 소개하고 세부 자문범위를 확정하였다. 이때 중소기업개발청은 요청에 따라 본 사업에서 전기차와 같은 글로벌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한국 자동차산업 발전 과정에서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함께 공유하였다. 파키스탄 현황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2021.01.23.~3.12.)는 현지 방문 대신 현지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체 실시되었다. SMEDA 요청에 따라 의류, 가전, 의료(수술 기구) 산업의 중소기업 현황 분석을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및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동차 산업 현황 분석의 경우 산업 협회와 면담을 진행했다. 또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파키스탄 정부, 현지 부품업계와 현대자동차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팬데믹이 연장됨에 따라 초청 연수 대신 연수 영상 제작 후 정책실무자연수(2021.04.01.~04.30.)를 실시하였다. 이때 한국에서 진행된 '2021 울산 국제 미래자동차 부품 온라인박람회(2021 UIFA Expo)'를 소개하여 파키스탄 정부가 한국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사업과 자동차 업계의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를 학습할 자리를 마련하였다. 중간보고회(2021.04.08.)에 이어 화상으로 개최된 최종보고회(2021.07.06.)에서 **나디아 자한기르 세스(Nadia Jahangir Seth) 중소기업개발청 부대표**는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과 협력할 수 있었던 점에 사의를 표하며, 동 사업이 제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사업('파키스탄 그린카 기술센터 설립 사업')으로 진행되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착수보고회(2020.11.17.)


세부실태조사 - 파키스탄 수출기업면담(포커스그룹)


최종보고회(2021.07.06.)

시사점

본 사업은 단순히 한국의 경험을 파키스탄에 전수하기보다 파키스탄 자동차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한국 경험을 선별하고, 파키스탄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정책방안을 자문함으로써 파키스탄 중소기업의 자립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지 민간기업, 산업 협회 등 다양한 관계자와 적극 협력하고 그린카 관련 후속사업 2건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후속 사업-파키스탄 신산업 시장 진출 지원 상담회



MOU 체결

잠정 성과

민간 경제협력 촉진

- KSP 사업과 연계하여 '2021 한-파키스탄 미래차 산업협력 언택트 콜라보' 개최, 전기차/배터리 관련 상담 15건 및 MOU 2건 체결
  · 삼미기계-Bin Rasheed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플랜트 구축 프로젝트
  · 이온어스-Zi Solar 전기버스 충전 시스템(충전소) 구축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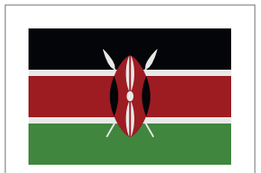
개발협력 촉진

-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와 현대경제연구원이 '파키스탄 그린카기술센터 구축' ODA 사업 연계 추진 중
- 한국에너지공단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파키스탄 ODA 사업 신청 준비 중

KSP 최종보고서

케냐 나이로비 대도시권 교통관리센터의 통합운영 방안

케냐 Kenya



수 도 **나이로비** (Nairobi) 면 적 **56만 9,140 ㎢** (한반도의 약 2.5배)

인 구 **5,377** 만 명 (나이로비 1,041만 명) 1인당 GDP **1,879** 달러

협력부처 **케냐도시도로청** (Kenya Urban Roads Authority)

2020년 기준,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

자문 주제	• 나이로비 대도시권 교통관리센터의 통합적 운영방안(도로 네트워크 모니터링, 교통신호 운영 및 관리, 도로정보 제공, 주요 성능 지표), 교통법규위반 무인단속시스템 개발, 응급상황 가이드라인 수립 및 응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도입 및 실행, 대중교통 연계 서비스를 위한 정책 및 기술
유관 한국경험	산업화 및 도시화 진행에 따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 지능형 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S) 도입 및 개선 • (1단계) ITS 도입(1993) • (2단계) 제도화 및 기반조성: 『교통체계효율화법』 제정(1999) 및 『국가 ITS 표준화 계획』 수립(2002) • (3단계) 성장 및 확산: 5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익산, 원주) ITS 센터 구축(2005) • (4단계) 차세대 ITS 도입: 협력형 ITS(Cooperative ITS) 도입 및 시범사업 추진(2016)

관련 대외정책: 과학기술·ICT(디지털 뉴딜 포함) ODA | **SDG:**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총괄기관: 한국수출입은행(KEXIM) | **수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주)한국종합기술, 도로교통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 추진 배경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는 급속한 도시화 및 개인소득 증가에 따라 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한 도로 혼잡, 교통 관리의 한계에 따른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요 대중교통 수단인 합승미니버스인 마타투(Matatu)가 교통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소득 증가에 따라 개인 교통수단(오토바이, 승용차) 이용이 증가하면서 상업지구의 주요 간선도로 정체 발생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또한 신규도로 건설과 유지보수, 교차로의 신호제어시설 등의 부족으로 교통 혼잡이 잦고,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연평균 4.1%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케냐 정부는 한국의 우수한 ITS 도입·운영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도로교통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KSP 사업을 요청하였다.

사업 목표 및 자문 내용

본 사업은 신규 교통관리센터 운영방안 자문을 통해 나이로비 대도시권의 도로교통 효율성 향상과 교통안전 개선을 목표하였다. 케냐는 2017/18 KSP 사업('케냐 지능형 교통체계 및 대중교통시스템 지원 방안')의 연계사업인 EDCF '나이로비 지능형 교통망 구축 및 교차로 개선 사업(1, 2차)'으로 교통관리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 연구진은 나이로비 대도시권 교통관리센터의 통합적 운영 방안을 자문하고, 나이로비에 적합한 교통법규 위반 자동단속 시스템, 응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도입 및 실행 방안, 대중교통 연계서비스를 위한 정책 및 기술 제언을 자문하였다. 또한, 교통관리센터의 기능 확대 및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단계별 중장기 발전계획도 함께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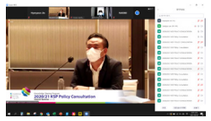
* (1단계) 교통관리센터 구축(EDCF 사업 연계, 2021-2023년) → (2단계) 교통관리센터 고도화(2024-2026년) → (3단계) 첨단 미래교통 확대(2026년~)

추진 내용

온라인으로 개최된 착수보고회(2021.12.02.)에서 **실라스 키노티(Silas M. Kinoti) 도시도로청장**을 비롯한 케냐 주요 관계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은 사업범위를 협의하고, 상호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피력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실라스 키노티 도시도로청장은 사업의 전 기간에 걸쳐 모든 보고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기관 차원에서 동 사업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출장이 제한됨에 따라 세부 실태조사는 사업 수행기관(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 중 ㈜ 한국종합기술)의 케냐 현지 지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화상 중간보고회(2021.06.02.), 정책실무자연수(2021.08.31.~09.01.)와 최종보고회(2021.08.31.)는 실라스 키노티 도시도로청장 포함 케냐 관계자 32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정책실무자연수는 한국의 대중교통체계 및 ITS 개편 관련 강의, 현장(교통정보센터, 단속시스템 등) 소개 및 담당자 인터뷰 영상을 제공하여 정책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중간보고회를 통해 수렴된 케냐 측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회에서는 나이로비의 대중교통 연결성을 제고하고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종 정책 제언을 발표하였다.



착수보고회(2021.12.02.)


중간보고회(2021.06.02.)


정책실무자연수 겸 최종보고회(2021.08.31.~09.01.)





시사점

본 사업은 비교적 손쉽게 도입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와 교통관리센터의 단계적 발전방안 자문을 통해 나이로비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지원하였다. 또한 KSP-EDCF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정책자문의 결과를 실제 사업화에 활용하면서 한국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양국의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KURA와의 지속적인 협력, 동아프리카 핵심 도시인 나이로비 대상 인프라 사업을 통해 한국 기업의 동아프리카 교통기술 시장 진출 활로를 마련하여 양국 경제협력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잠정 성과

개발협력 촉진
- EDCF 연계사업('나이로비 지능형 교통망 구축 및 교차로 개선 사업(1, 2차)', 2021-2023, 6,100만 달러)을 통해 신설되는 교통관리센터의 운영에 활용될 예정

KSP 최종보고서

[IDB] 온두라스 라세이바시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 수립

온두라스 Honduras



수 도 **테구시갈파** (Tegucigalpa) 면 적 **11만 1,890** ㎢ (한반도의 약 1/2)

인 구 **990** 만 명 1인당 GDP **2,389** 달러

협력부처 **대통령실** (Office of Compliance of the Presidential Affairs and Priorities)

2020년 기준,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

자문 주제	• 라세이바시 맞춤형 IT 기반의 스마트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교통, 관광, 치안 분야의 스마트시티 로드맵 수립 및 아키텍처 구축, 스마트시티 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
유관 한국경험	세계적 수준의 ICT 기술력과 도시개발 노하우를 토대로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및 시범도시 조성 • 2009년부터 5년 단위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신도시 중심 스마트시티 조성 및 ICT 인프라 확대 * 제1차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U-City 종합계획): U-City 구축 단계(2009-2013년) → 제2차 U-City 종합계획: 정보 및 시스템 연계(2014-2018년) →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스마트시티 본격화(2019-2023년) • 전국 78개 지자체(광역 17개 시·도, 기초단체 61개) 스마트도시 전담조직 구성 및 67개 지자체 스마트시티 추진 •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등 스마트시티 협력사업 추진

관련 대외정책: 과학기술·ICT(디지털 뉴딜 포함) ODA | **SDG:**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총괄기관: 한국수출입은행(KEXIM) | **수행기관:** (주)삼성SDS

사업 추진 배경

라세이바(La Ceiba)는 온두라스 제3의 도시로 관광산업과 무역이 발달하였으나 치안 불안과 범죄율 증가에 따른 관광산업 부진, 실업·이민 증가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지역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두라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를 설치하여 라세이바시 스마트시티 개발 및 투자 유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부역량 및 재정 부족, 도시개발 거버넌스 부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온두라스 정부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을 응용하여 도시문제 해결책을 강구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KSP 사업을 요청하였다.

사업 목표 및 자문 내용

본 사업은 미주개발은행(IDB)과의 공동컨설팅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해 라세이바시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목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라세이바시 스마트시티 구축전략을 수립하고, 관광, 교통, 치안을 중심으로 ICT를 접목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 및 실행 방안을 자문하였다. 더 나아가 향후 온두라스 정부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도록 라세이바시의 도시발전 현황 분석·파악을 통해 스마트시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분야별(18개 과제)·단계별(3단계)로 제시하였다. 특히, 사업 타당성(F/S) 분석 없이 바로 실행이 필요한 과제는 1단계에 배치하고, 중요도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시행 선순위 사업*을 별도로 제안함으로써 라세이바시 정부가 본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사업으로 연계/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코자 하였다.

* 통합관광정보 제공 서비스, 지능형 CCTV 방범서비스, 통합운영센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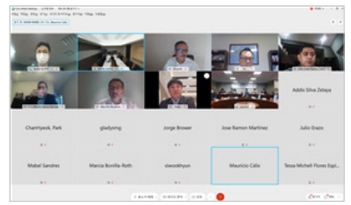
추진 내용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사업 수행이 어려웠으나, 사업 수행기관과 IDB, 라세이바시 관계자, 온두라스 고위급 등 사업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안을 적극 모색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었다. 착수보고회(2020.11.11.)에 **마벨 산드레스(Mabel Sandres) 공공혁신부 차관, 헤리 사비오(Jerry Sabio) 라세이바시장**, 에두아르도 알메이다(Eduardo Almeida) IDB 온두라스 사무소 대표, 심재현 주온두라스 한국대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이때 더욱 면밀한 현황조사를 위해 실태조사 전담 인력 지정과 자료 제공에 대한 라세이바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재확인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역시 화상으로 개최된 중간보고회(2021.02.20.)에서 중간 연구 경과에 대한 현지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이때 **마르코 미덴세(Marco Midence) 재무부 장관**이 직접 참여하여 온두라스 경제 도약을 위한 라세이바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는 등 본 사업에 대한 고위급의 지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팬데믹으로 인해 국경 이동이 제한되자 온두라스 현지 업체와 여러 차례 화상회의를 통해 세부 실태조사(2020.11.11.~12.14. / 2021.01.04.~02.19.)를 실시하였다. 마벨 산드레스 공공혁신부 차관 등 고위급이 참여한 최종보고회(2021.05.27.)에서 한국 연구진은 라세이바시의 여건을 고려한 18개의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3개 사업을 실증사업 과제로 선정하고, 동시에 다른 15개 과제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온두라스 재무부와 공공혁신부는 KSP 정책제언의 사업화를 위해 사업 타당성 검토에 대한 공식 요청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정책실무자연수(2021.06.09.~12.)에는 협력국 고위급 인사*가 다수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서울시, 부천시, 제주도)의 스마트시티 서비스와 적용 기술 사례를 공유하고, 스마트시티 서비스 운영관리를 위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자리를 가졌다.

* 마벨 산드레스 공공혁신부 차관, 니콜레 마르데르(Nicole Marrder) 온두라스 관광부 장관, 라파엘 루이스(Rafael Ruiz) 온두라스 교통부 장관



정책실무자연수(2021.06.09.-12.)


착수보고회(2020.11.11.)


중간보고회(2021.02.20.)



최종보고회(2021.05.27.)

시사점

본 사업은 한국, 온두라스, IDB 관계자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관광 활성화 및 홍보 촉진', '대중교통 및 모빌리티 강화', '공공 치안 강화'로써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라세이바시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 수립과 실제 사업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온두라스, IDB 관계자들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1) 통합관광정보 제공 서비스, 2) 지능형 CCTV 방법서비스 제공, 3) 통합운영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의 3대 핵심 추진과제가 도출되었으며, 동 제안방안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유상원조(EDCF) 신청 방안 등을 협력국 정부 앞으로 안내하여 현재 온두라스 정부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다. 실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라세이바시 거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외에도 한국 업체의 사업 수주를 통한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 등 한-온두라스 경제협력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잠정 성과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 라세이바시는 사전협의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사업종료 후에도 본 사업 추진을 위한 F/S 신청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바, 향후 후속사업으로의 연계 가능성 제고에 기여

KSP 최종보고서



혁신

세르비아 세무행정 체계화를 통한 조세정책 역량 강화

콜롬비아 중소기업 혁신정책 수립 및 이행 방안

이집트 전자공학분야 과학기술단지(STPERI) 운영 전략 수립

세르비아 세무행정 체계화를 통한 조세정책 역량 강화

세르비아 Serbia





수 도 **베오그라드** (Belgrade)

면 적 **8만 7,460** ㎢ (한반도의 약 1/3)

인 구 **690** 만 명

1인당 GDP **7,721** 달러

협력부처 **국세청** (Serbian Tax Administration)

2020년 기준,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

자문 주제	• 세르비아 세무행정 체계화 방안 •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납세자 서비스 강화 지원 • 세르비아 세부공무원의 인적자원관리 체계 평가와 제언
유관 한국경험	20여 년간 축적된 국세청의 전자세정 노하우와 IT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eo Tax Integrated System, NTIS)을 기반으로 홈택스(Hometax)와 통합 세무행정 시스템을 마련하여 납세서비스의 편리성과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 국세통합시스템 개편 및 확대한 NTIS 구축 및 운영 • NTIS에 연동된 홈택스를 통해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서비스(세금 신고, 납부, 세금납부 확인서 발급 등) 확대

관련 대외정책: 과학기술·ICT(디지털 뉴딜 포함) ODA | **SDG:**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 **총괄·수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 추진 배경

세르비아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인 2025년 EU 가입을 위해 EU 회원국 가입 전략(National Strategy of Accession to the EU)의 일환으로 정보통신 관련 법·제도 구축과 경제·사회 전면에 걸친 개혁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전산화, 중앙부처별 전자정부 도입 및 시스템 디지털화 등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하여 공공행정의 효율화와 세수 확대를 통한 재정 안정화에 도모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르비아 재무부 산하에 있는 국세청은 세무행정 전환 프로그램(Tax Administration Transformation, 2015-2020)과 세무행정 전환 프로그램 이행계획(Tax Administration Transformation Action Plan, 2018-2023)을 수립하였다. 또한, IT 기술을 접목한 납세서비스, 전자감사(e-audit)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세무행정의 전산화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IT 기술 기반 납세서비스와 성공적으로 국세정보를 통합한 세무행정 체계를 구축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받고, 세무행정 전환 프로그램의 평가와 세무행정 체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KSP 사업을 요청하였다.

사업 목표 및 자문 내용

본 사업은 조세국 주요 기능의 전산화 및 세무행정 체계화를 통해 효율적인 과세 기반을 확보하고, 인적역량 강화를 통해 세무행정의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납세·과세 정보의 통합 관련 법률과 통합시스템인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및 빅데이터 센터 경험을 토대로 세무 시스템 개선방안, 전산화를 위한 자료 확보 및 통합화, 필요 법적 제반 사항을 자문하였다. 또한,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0년 구축된 전자 세정(e-Taxes) 전산 포털의 활용 방안, 세목비율이 높은 간접세 신고 간편화(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등 ICT를 활용한 납세서비스 강화 방안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조세국 세무공무원 정원 확대를 위한 인적자원 관리체계 개선 자문도 함께 이뤄졌다.

추진 내용

드라가나 마르코비치(Dragana Markovic) 세르비아 국세청장이 전 사업단계에 모두 참석하고, 세르비아 측이 적극적으로 연구 결과와 정책제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양측의 원활한 소통 덕분에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착수보고회(2021.02.04.)에서 '세무행정 전환 프로그램' 총책임자인 **라데 세비치(Rade Šević) 전환 국장**이 직접 주제별 현황을 발표하여 한국 측은 세르비아 국세청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후 화상, 서면 질의응답, 상공회의소, 민간 회계·세무사 등 관계자 면담 등을 활용한 현지 세미나 및 세부 실태조사(2021.04.07.~05.21.)를 통해 세르비아 국세청 소속의 현지 전문가들과 세무행정 체계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다. 이후 현지 전문가 포함 세무공무원 대상 중간보고회(2021.05.17.)와 세르비아 재무부 및 조세국 고위급 관계자 대상 최종보고회(2021.06.28.)를 통해 각각 정책연구 중간경과와 최종 정책제언이 온라인으로 공유되었다. 세르비아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최종보고회 이후 개최된 정책실무자연수(2021.08.17.~18.)에서는 한국의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제도, 국세교육원, NTIS 및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국세청 요청에 따라 영상으로 제작된 연수자료는 내부 직원들에게만 공개되었으며, 사업 종료 이후 참고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착수보고회(2021.02.04.)



현지세미나(2021.04.07.)


중간보고회(2021.05.17.)




최종보고회(2021.06.28.)

시사점

동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한국의 공정과세, 편리한 납세서비스, 세무행정의 업무 효율화 경험은 세르비아 국세청이 '세무행정 전환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 ODA 정책의 N-2 방침에 따라 사업이 착수된 2020년에 이미 세르비아 조세국이 자체적으로 납세자 서비스의 전산화를 추진하는 등 세르비아 정부의 사업신청 시점과 비교 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양측이 긴밀한 논의를 통해 현지 여건과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사업 범위를 재조정하고, 한국의 발전경험을 선별하여 단·중장기 정책방안을 도출함으로써 KSP 정책자문의 실효성을 향상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빅데이터 및 AI 기술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센터 설립 등 세무행정 디지털화에 대한 세르비아 국세청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여 후속 KSP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세르비아 협력 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잠정 성과

개발협력 촉진(국내 후속협력)
- 2022/23 KSP '세무행정 디지털화 이행 지원' 사업으로 연계하여 후속 기술지원 예정

협력대상국 자체 정책반영
- KSP 제언 중 '납세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과세자료 수집 관련 법·제도 개선)'로써 세르비아 국세청은 상위부서인 재무부에 관련 법안 마련을 요청
- KSP 제언 중 'e-Taxes Portal 내 관련 납세서비스 기능(미리채움, 세금납부시스템 연계, 인증서 발급 등) 추가'는 세무행정 개혁안의 중장기적인 계획에 포함될 예정
- KSP 보고서 및 영상보고서, 주요 정책제언은 세르비아 국세청 최고 경영자 위원회(The highest management body of the Serbian Tax Administration, Transformation Committee)에 보고되었으며(2022년 3월), 제언별 추진사항을 논의하였고, 최종 KSP 보고서는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회람

세르비아 정부 요청에 따라 최종보고서 비공개

콜롬비아 중소기업 혁신정책 수립 및 이행방안

콜롬비아 Colombia





수 도 **보고타** (Bogota)
면 적 **110만 9,500 ㎢** (한반도의 약 5배)
인 구 **5,088** 만 명
1인당 GDP **5,335** 달러
협력부처 **국가기획부** (National Planning Department)

2020년 기준,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

자문 주제	• 중소기업 혁신정책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학 및 민관 연계방안 •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 인더스트리 4.0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유관 한국경험	중점 육성산업 대상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 지원, 50여 개의 산학협력단 육성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민관협력 추진, 기술평가모델 도입을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 양성, 정책자금 지원·조세 감면·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등 국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혁신과 육성을 적극 지원

관련 대외정책: 과학기술·ICT(디지털 뉴딜 포함) ODA | **SDG:** 목표 8.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 **총괄·수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 추진 배경

콜롬비아 전체 기업 중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력 향상은 국가 경제 및 산업 발전에 있어서 필수 과제이다. 그러나 콜롬비아의 중소기업 중 대기업 혹은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드물고, 중소기업의 미흡한 기술혁신 역량이 콜롬비아 생산성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뽑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반 두께 마르케스(Iván Duque Márquez) 콜롬비아 대통령은 '2018-2022 국가발전계획'의 핵심으로 혁신과 중소기업 발전을 천명하며, 이행방안으로 혁신을 강조하였다. 특히 '오렌지 경제(Orange economy)'라는 모토 아래 인더스트리 4.0을 통한 제조업 발전을 신성장 동력의 기반으로 삼고 ICT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혁신적인 정책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정책 구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2018년 OECD 가입에 따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선진화된 중소기업 정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콜롬비아는 한국의 성장 과정에서 중소기업 혁신 강화 정책에 대한 경험을 공유받고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KSP 사업을 요청하였다.

사업 목표 및 자문 내용

본 사업은 콜롬비아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한 혁신정책 수립 지원을 목표로 하였다. 한국-콜롬비아 중소기업 정책 비교분석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 지원 정책(정부 주도 집중 R&D 지원분야와 기업, 전략산업 선정), 지속가능하고 상생적인 중소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학 연계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 기술혁신 발전사업, 스마트 혁신지구 사업), 중소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 정책(혁신형 중소기업 대상 기술금융 및 기술평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중소기업 디지털화 전환 지원 정책(우선순위 사업 선정, 브랜드 프로그램)을 자문하였다.

추진 내용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업은 비대면으로 실시되었으나, 전 단계에 걸쳐 국가기획부를 비롯한 콜롬비아 주요 부처 고위급이 참여하는 등 콜롬비아 정부 전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온라인 착수보고회(2021.01.19.)에 **다니엘 고메즈 가비리아(Daniel Gomez Gaviria) 국가기획부 차관**을 비롯해 **알레한드로 올라야 아빌라(Alejandro Olaya Avila) 과학기술혁신처 차관, 마리아 호세 나랑조(Maria Jose Naranjo) 대외무역은행 부총재** 등 현지 관계부처 고위급이 대거 참여하여 한국 측과 콜롬비아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세부 실태조사를 위해 콜롬비아 대통령실 경쟁력위원회, 중앙은행, 상공회의소, 콜롬비아경제인연합회, 투자혁신처 등 주요 관계 기관과의 화상회의, 한국 연구진과 현지 전문가 연구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중간보고회(2021.05.25.)에 한국 유관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양측은 중간 연구 결과와 한국의 관련 경험을 공유하였다. 특히 한국 이노비즈(InnoBiz)의 혁신기업 인증제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R&D 지원 생태계, 블리스바인벤처스(Blissvine Venture)가 제안한 중소기업의 유가증권 시장 진입 방안,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스마트팩토리 프로그램 추진 체계에 콜롬비아 측의 관심이 높았다. 이와 더불어 신용보증기금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콜롬비아 측의 추가 자문 요청을 접수받고, 별도 자문과 연수영상 제작을 실시하였다. 이후 최종보고회(2021.08.19.) 참석에 이어 KDI를 방원한(2021.11.09.) 다니엘 고메즈 차관의 요청에 따라 사업 결과를 콜롬비아 안에서 환류하여 KSP 정책제언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부처, 민간기업 관계자 등 총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혁신정책-한국과의 협력' 온라인 세미나(2021.11.25.)가 개최되었다.


착수보고회(2021.01.19.)



중간보고회(2021.05.25.)


중소기업 혁신정책 - 한국과의 협력 온라인 세미나(2021.11.25.)

시사점

본 사업은 콜롬비아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내내 협력부처뿐 아니라 상공관광부, 과학기술혁신부, 대통령실, 중앙은행 등 주요 정부부처와 민관 관계자가 대거 참여하여 한국-콜롬비아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 특히, 협력부처는 다니엘 고메즈(Daniel Gomez) 차관이 KDI에 방원하여 본 사업 추진에 사의를 표한 이후 동 사업의 성과를 전파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생중계로 진행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자국 내 전파하고, 다음 국가발전계획 수립에 본 사업의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 측과 지속 접촉하고 있는바, 장기적인 사업의 성과도 기대된다.

잠정 성과

협력대상국 자체 정책 반영

- 2022-2026년 국가개발계획 수립 시 KSP 정책제언 포함 고려: 연구개발 집중 투자 산업 선별, 한국 산학협력 프로그램 벤치마킹, 한국의 4차 산업분야 조세감면 정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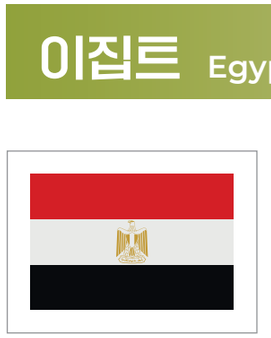
정책네트워킹 강화

- KDI를 직접 방원한 다니엘 고메즈 국가기획부 차관의 특별 요청에 따라 콜롬비아 10개 주요 관계기관, 20여 개 중소기업 대표 대상 '중소기업 혁신정책-한국과의 협력' 온라인 세미나 개최(2021.11.25.)

KSP 최종보고서

이집트 전자공학분야 과학기술단지(STPERI) 운영 전략 수립

이집트 Egypt





수 도 **카이로** (Cairo)

면 적 **99만 5,450 ㎢** (한반도의 약 4.5배)

인 구 **1억 233** 만 명

1인당 GDP **3,569** 달러

협력부처 **고등교육·과학연구부**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and Scientific Research)
전자공학연구원 (Electronics Research Institute)

2020년 기준,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

자문 주제	• STPERI 운영 전략 수립을 위한 역량 진단 및 평가 • STPERI의 지속가능한 구조 및 기능 설계 • 단계별 STPERI 발전 전략 수립: 비즈니스 모델 및 산업기술대학 설립
유관 한국경험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과학 분야 혁신주체(과학기술연구소, 연구중심대학, 연구개발특화단지 등)를 육성하여 국가혁신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혁신주체 간 공동학습,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협력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식기반 경제의 기틀을 마련 • 1973년 한국 유일 과학도시인 대덕과학타운(Daedeok Science Town, DST)을 조성하고 오늘날 과학기술의 메카로 성장. DST는 2005년 대덕 이노폴리스로 확대, 이후 4개 이노폴리스, 12개 이노타운 개발

관련 대외정책: 과학기술·ICT(디지털 뉴딜 포함) ODA | **SDG:** 목표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총괄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수행기관:** ㈜큐아이브이(QIV)

사업 추진 배경

이집트 정부는 2016년 이집트 중장기 발전계획인 '비전 2030'을 발표하고, 10대 국가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지식, 혁신, 그리고 과학연구'를 위해 'Egypt Makes Electronics(EME)'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여 국가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ME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이집트 고등교육과학연구부와 전자공학연구원(Electronics Research Institute, ERI)은 2018년 이집트 R&D 활성화와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학과학기술단지(Science and Technology Park for Electronics Research and Industry, STPERI)를 설립하였다. 2023년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R&D 연구·산학연계·민간연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효과적인 STPERI의 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전자산업계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혁신체계를 구축을 위한 KSP 사업을 요청하였다.

사업 목표 및 자문 내용

본 사업의 목적은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에 기반한 연구·산업개발 경험을 이집트와 공유하고, 과학기술 및 전자산업 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ERI에서 요청한 STPERI에 맞는 과학기술대학 설립을 위해 한국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UST), 한국과학기술원(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한국산업기술대학교(Korea Polytechinic University, KPU)를 벤치마킹하여 STPERI 맞춤형 대학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성공적인 연구중심 과학기술단지 운영 경험을 보유한 한국 기관과의 후속협력 연계를 통해 양국의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고 소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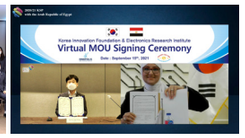
추진 내용

야셰르 리팟(Yasser Refaat), 히샴 파룩(Hesham Farouk) 고등교육과학연구부 차관, 히샴 엘딥(Hesham Eldeeb) 前 ERI 원장 등 고위급을 비롯한 이집트 주요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착수보고회(2021.03.29.)를 개최하여 KSP 정책자문을 통한 운영전략 수립 및 활용에 대한 현지 측의 적극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태조사의 경우 ERI 관계자 대상 화상인터뷰(2021.04.08~0.17)와 서면 조사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 수행하였다. 세부 실태조사(2021.04.20.~06.30)에서는 혁신생태계 관련 기관(정부부처, 대학,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STPERI에 대한 수요설문을 진행하였다. 이때 정보통신부, 투자청 등 정부관계자(3명), 기술 관련 대학, 연구소 관계자(18명), 전자·과학 분야 민간회사 소속 담당자(12명) 등 총 33건의 응답 결과를 확보하여 운영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2021.07.05~06.)에서 한국 측은 이집트 고위정책관계자와 정책실무자, 현지 전문가 등 25명과 연구 중간경과를 공유하고, 과학기술 단지를 위한 혁신 클러스터 발전 경험(과학기술정책개발원), 기술 및 창의자본 투자(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산학협력 모델 및 기업가적 대학(한밭대학교),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R&D 성과 제고(특허법인 다래) 등에 과학기술단지 운영과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였다. 최종보고회(2021.09.15.)는 야셰르 리팟 고등교육과학연구부 차관, **아테프 헬미(Atef Helmy) 전 정보통신부 장관, 왈리드 가드(Walid Gad) 정보기술상공회의회 회장, 아흐메드 압델 나지어(Ahmed Abdel Nazeer) 방산물자부 전 이사장, 셰린 카데르(Sherine Kader) ERI 원장** 등 고위급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최종 자문 결과를 정책결정권자들과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한-이집트 간 지속적인 과학기술 협력을 위하여 대덕산업단지 등 한국의 STP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과 ERI 간 후속사업화를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서 사업이 종료되었다.


착수보고회(2021.03.29.)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2021.07.05.~06.)

최종보고회 및 MOU 체결식(2021.09.15.)

시사점

본 사업은 전략뿐만 아니라 MOU를 체결하여 전략 이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이집트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및 '이집트 비전 2030'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지역거점 과학기술단지-산학협력-기술대학 설립 및 운영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경험을 비춰볼 때 향후 이집트와의 후속사업 발굴을 통해 이집트의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 확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집트 사업책임자인 히샴 엘딥 前 ERI 원장은 2021 지역별 세미나(2021.09.29.) 발표자로 참여하여 KSP의 우수성을 언급하고 중동·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



혁신 분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U (2021.09.15.)

잠정 성과

개발협력 촉진

- 이집트 전자공학연구원-한국 연구개발특구재단 간 후속협력 MOU 체결(2021.09.15.)

KSP 최종보고서

파트너십

2021 성과공유콘퍼런스 및 아프리카 지역 세미나

2021 성과공유 콘퍼런스 및 아프리카 지역 세미나

“녹색·디지털 경제 시대의 지식공유를 말하다”

2021년 KSP 성과공유콘퍼런스는 “녹색·디지털 경제 시대의 지식공유를 말하다”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디지털 및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경제회복과 활력복원을 위한 포괄적 대응을 위한 지식공유의 역할을 논의하고, 한국의 대표 지식공유 사업인 KSP의 당해 연도 성과를 관계자들과 공유하였다. 콘퍼런스는 국내 국제개발협력 관계자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당해 연도 KSP의 종합적인 성과를 공유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아프리카 지역 세미나’와 ‘KSP 후속사업 연계포럼’을 연이어 개최하여 아프리카 협력국들,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였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시 온라인과 주요 연사 현장 참석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추진되었고, 37개국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성과공유콘퍼런스 이후 협력국들로부터 사업 참여 방안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고 가나와 같이 지역 세미나에 참여한 아프리카 국가가 2023/24 KSP 사업을 신청하였다.

2021 KSP 성과공유콘퍼런스 개요

주최 기획재정부

주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수출입은행(KEXIM),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일시·장소 2021.9.28(화)~30(목), 서울 콘래드 호텔 3층 회의장 (대면+온라인)

주제 녹색·디지털 경제 시대의 지식공유를 말하다.

- 1일차 — 성과공유콘퍼런스: 개회사, 기조연설, 전체회의, 분과회의
- 2일차 — 아프리카 지역 세미나: 아프리카 협력국 관계자 대상
- 3일차 — 성과확산 및 후속사업연계 포럼: 국제기구 및 한국 대상

1일차

성과공유콘퍼런스

콘퍼런스 1일차 ‘2021 KSP 성과공유콘퍼런스’는 개회식 및 기조연사강연을 필두로 ‘전체 세션 및 라운드테이블’, ‘세션1 녹색·디지털 유관 KSP 사업소개’, ‘세션2 보건(K-방역) KSP 사업 소개’ 등 총 3개의 세부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개회식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마티아스 코만((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 홍장표 KDI 원장, 마르코스 폰테스(Marcos Pontes) 브라질 과학기술혁신부 장관,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마이클 크레이머(Michael Kremer) 미국 시카고대 교수** 등 저명인사가 참석하였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국제기구 및 한국전력공사·삼성SDS 등 국내외 관계자들을 포함한 37개국 150여 명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석하였다.


마티아스 코만(Mathias Corman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축사


마르코스 폰테스(Marcos Pontes)
브라질 과학기술혁신부장관 축사

홍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KSP가 나아갈 방향을 3가지 키워드(‘3S’)로 제시하였다. 첫째, 협력국의 역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자문보고서(모듈화)’ 보급 및 방한연수 확대 등을 통한 인적네트워킹 강화 등을 꾀하고(‘Soft-power’), 둘째,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다년도 자문인 KSP-Plus를 도입하고 후속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Sustainability’), 셋째, 협력국 및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을 증진하기 위해 긴급요청사업 비중 확대와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을 통한 사업 발굴 및 협의 방침을 밝혔다.(‘Synergy’)

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은 지식공유가 OECD 회원국에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제언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국이 직면한 개혁 의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발언하였다. 특히, 코만 총장은 한국형 뉴딜정책을 기반으로 위기 시대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전 세계적 귀감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마이클 크레이머(Michael Kremer)
시카고대학교 교수(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기조연설

KSP 협력국을 대표해 참석한 마르코스 폰테스 브라질 과학기술혁신부 장관은 KDI와 실시한 2020-21 KSP 사업(‘과학기술혁신 발전을 위한 정책·거버넌스 개선’)이 시의적절하게 실시된 점에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한-브라질 간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디지털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KSP를 통한 개도국의 교육·농업 부문 디지털화 지원을 제안하는 한편 ‘실험적 접근방식’(experimental method)* 등 KSP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식공유 방식의 고도화 방안을 이야기하였다.

* 정책 대상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무작위로 배정한 후, 두 집단에 나타난 차이를 비교하여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방법


전체회의-‘녹색·디지털 경제 시대의 지식공유를 말하다’

전체회의 토론 참여자들(벨라루스·도미니카공화국 등 협력국 및 KSP 총괄기관 관계자)은 개발협력의 목표가 공여국과 협력국의 공동번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달성이라는 점에 공감했으며, 녹색·디지털 부문에서의 개발협력사업이 기업과 협력국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 소결하였다.

분과회의는 녹색·디지털 유관 사업(분과1)과 보건(K-방역) 사업(분과2)을 주제로 대표적인 최신 KSP 사업 성과 등이 공유되었다. 이때 KSP 사업의 결과가 협력국 정책에 자체 반영되거나 국내 및 국제기구의 후속협력 연계, 또는 경제협력 촉진 등으로 이어진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유하여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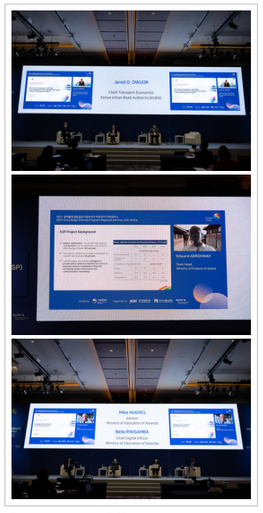
2일차

아프리카 지역 세미나

지역 세미나는 권역별 국가들이 당면한 공통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 간 상호 학습을 촉진하고 새로운 협력 수요를 발굴하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2012년부터 총 13회에 걸쳐 진행된 지역 세미나는 매년 다른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되나, 2021년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2021 KSP 지역 세미나는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2021년은 세네갈, 모로코, 코트디부아르 등 주요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과 처음 수교를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이다. 또한, 5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인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의 출범으로 아프리카가 총인구 약 13억 명, GDP 약 3조 40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아프리카 파트너십이 강화되리라 기대된다.

지역 세미나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 방안을 모색하고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혁신 방안'을 주제로 '세션1 경제회복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혁신 인프라 구축', '세션2 디지털 기반의 지속가능한 재정·과학기술 운용 방안', '세션3 아프리카 녹색·디지털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등 총 3개의 세부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세션 1~3 성과사례 발표

세션1: 경제회복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혁신 인프라 구축

세션1에서는 '2020/21 케냐 나이로비 대도시 교통관리센터 운영방안'과 '2019/20 모잠비크 운전면허교육 시스템 현대화 사업'의 성과가 공유되었다.*

* EDCF 인프라 사업 연계(2020/21 케냐 KSP, 28쪽 참고), KOICA 운전면허 자격시험장 선진화 사업 연계(2019/20 모잠비크 KSP)

세션2: 디지털 기반의 지속가능한 재정·과학기술 운용 방안

세션2에서는 '2019/20 가나 세제·세정 개혁 및 국내 세수 증진을 위한 ICT 활용 방안' 사업과 '2020/21 이집트 전자공학분야 과학기술단지(STPERI) 운영 전략 수립' 사업의 성과가 소개되었다.*

* 납세자 식별번호 개선, 부동산세 징수 추진, 납세시스템 디지털화 추진, 국내 전체 상품서비스 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재정전자기기(FED) 도입을 위한 법 제정 추진(2019/20 가나 KSP), STPERI의 조직구조 및 운영모델 개선방안 도입, 한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노폴리스)과 MOU 체결 2020/21 이집트 KSP, 37쪽 참고)


세션 3 토론

세션3: 아프리카 녹색·디지털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세션3은 한국의 디지털 뉴딜 정책 및 그린 뉴딜 정책 경험을 소개하고, 이를 아프리카의 주요 개발 의제와 연계하여 신규 KSP 사업 발굴을 위해 뉴딜별 주요 발전 분야와 협력 기대 과제가 소개되었다.*

* 주요 분야: 데이터 통합, 교육인프라 디지털화, 언택트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디지털 뉴딜)
재생가능에너지, 농업기후회복력, 기후변화대응, 공공교통 개발(그린 뉴딜)
* 협력 기대 과제: 데이터 댐, 마이데이터 뉴 이니셔티브(디지털 뉴딜)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그린 모빌리티(그린 뉴딜)

3일차

성과 확산 및 후속사업연계 포럼

'KSP 성과 확산 및 후속사업 연계 포럼'은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KSP 정책자문과 후속사업 간 연계 방안을 다루고 민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수출입은행의 'KSP 후속연계사업 및 향후 추진전략 세션'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미주개발은행(IDB)의 기술협력 프로그램 및 독자적인 사업 발굴 노하우, KSP 사업과의 연계 사례 등을 소개하여 KSP 후속사업 연계를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특히 한국 유·무상 ODA 수행기관과의 연계 및 KSP 후속사업 발굴을 위한 단계별 방안 소개를 통해 KSP 사업이 EDCF 사업 발굴 및 준비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KOTRA의 '기업협력 포럼'에서는 최근 추진된 KSP 사업을 활용한 후속 프로젝트 참여방안 등을 한국 기업들과 공유하였다. 스마트시티 구축 계획(브라질, 에콰도르, 케냐), 전력공급 협력 방안(온두라스, 동티모르), 화물운송 및 철도체계 구축과 협력방안(과테말라) 등 기업들이 참여를 고려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 인프라, 스마트시티 구축 프로젝트들이 주로 소개되었다.



IDB의 TC/TA, 인프라 사업 소개 및 연계추진 사례 발표



2021/22 케냐 EIPP 사업소개('콘자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세부전략 수립')

KNOWLEDGE
SHARING
PROGRAM

04

2020/21 KSP 연구 사업 소개

- 지역 연구: 인도, 태국, 케냐
- 동향 연구 '신남방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 협력국 기초분석 조사
- 협력국 전자정부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KSP 사업 개선방안 연구

지역연구

인도, 태국, 케냐



인도 태국 케냐

KSP 사업은 2004년 출범 이후 수요중심 접근(demand-driven)을 기반으로 협력국의 개발의지를 존중하고, 주인의식을 도모함으로써 협력국의 자생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제도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개발협력 환경과 협력국의 복잡한 개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양국 협력 수요를 모두 고려하는 협의주의적 접근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KDI는 2016년부터 'KSP 지역연구'를 통해 협력국의 정치, 경제적 현황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망 협력분야를 도출하고 있다. 2021년 지역연구는 3개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KSP 사업제안을 끌어내는 등 기존 연구에 비해 차별화된 시도를 하였다.

2021년 지역연구는 인도, 태국, 케냐 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인도는 2021년 신규 ODA 중점협력국이자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이다. 역시 신남방정책의 주요 협력파트너인 태국은 과학기술, 동부경제회랑(East Economic Corridor, EEC) 투자 협력 등 다방면에서 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케냐는 협력국의 경제 도약과 한국 기업의 해외 수주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신설한 KSP 중장기 협력모델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EIPP)의 대상 국가로서 앞으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보고서는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국별 고유의 정치 구조와 정책 결정 과정, 국내 경제·사회 주요 발전 정책, 개발협력 및 경제협력 관련 거버넌스 등 정치·제도적 여건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향후 KSP 사업 추진 시 협력국 주요 의사결정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활용하고, 정치·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협력국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고자 하였다. 2장은 경제여건 및 대외협력 현황 분석을 통해 7개 주요 분야별* 심화 분석, 각 주요국, 국제기구와 협력대상국 간 양·다자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협력국의 발전제약요인, 기회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때 전년도 지역연구와 다르게 경제성장의 구조적 요인 분석을 위해 성장회계 방법론을 준용하여 협력대상국의 과거 성장률 실적을 생산요소(노동 및 자본 투입)와 총요소생산성(TFP) 기여도로 분해, 성장경로 추이를 파악하였다. 또한, 협력대상국의 경제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중경제모형에 기반한 산업구조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산업분야별 성장잠재력과 발전제약요인을 식별하고자 하였다.

* 7개 주요 분야: 사회개발, 인적자본, 인프라, 산업, 무역 및 통상, 거시경제 및 재정, 시장 및 제도 여건 등

마지막 장에서는 기존 지역연구의 '협력국별 유망 협력사업 분야'에 더해 구체적인 KSP 사업을 제안하여 효과적인 사업 발굴 및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인도, 태국, 케냐의 유망협력 사업 제안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인도 KSP 유망협력분야 및 제안 사업

한·인도 스마트시티 협력 이니셔티브	• 인프라 개발을 위한 100억 달러 금융패키지를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건설 정책 지원 • 스마트시티 건설 정책은 모디 정부의 핵심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분야 • 스마트시티는 산업 회랑과 함께 Make in India를 위한 현대적 인프라를 갖춘 도시 개발을 통해 기존 대도시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제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 인도는 혁신 창업이 가장 활발한 나라이며, 유니콘 기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 특히 4차 산업혁명 역량, 혁신 R&D 역량은 한국에 비해 우수한 부문도 많은 것으로 파악 • 모디 정부는 Startup India를 통해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육성 정책 추진 • 한국은 모바일 게임, IT, 보안, 핀테크, 인도는 IoT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시너지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 • 서울(글로벌 산업 생태계 20위)과 벵갈루루(26위)의 스타트업 기업 교류 제안
디지털인디아 이행 지원: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 인도는 디지털인디아(Digital India)를 적극 추진하며 디지털 인프라 구축, 거버넌스 및 공공·민간 서비스의 디지털화, 인도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 비전 제시 • 인터넷 사용자 지수(107위), 온라인 정부 지수(100위), 온라인 참여 지수(29위)가 낮아 정책 이행 방안 필요 • 종이 문서 위주의 행정업무, 주정부·지방정부 간 정보 공유 불충분, 공무원 인적역량 부족 문제 대두 • 한국 전자정부 인프라 확충, 전자행정 시스템 구축 경험 전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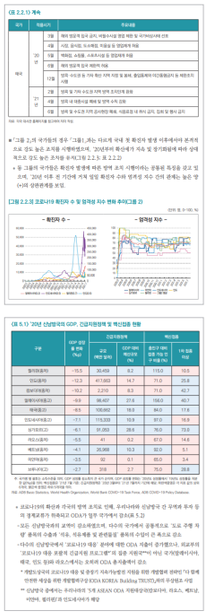
표 2 태국 KSP 유망협력분야 및 제안 사업

직업교육훈련	•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동부경제회랑 중심의 거점개발 지원 • TVET 질 제고를 위한 학제 및 전달체계, 교사양성, 교육과정 및 자격체계 등의 구조 개선 • TVET 집중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기관 설립과 CoE(Center of Excellence)의 역량 진단 및 개선
혁신 중소기업 육성: 자동차 산업재편을 중심으로	• 혁신역량 및 생산성 강화: 자동차 벤더기업 및 배터리 기업 육성 • 자동차-전자 산업 간 수평적 가치사슬 구축 •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연계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 • 친환경 자동차 분야인 수소자동차 기술협력 및 새로운 GVC 편입
산업단지구축 (동부경제회랑)	• 동부경제회랑 지역 내 산업단지 및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및 국내기업 진출 유도 • R&D 및 인력양성과 건설 및 IT기술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 및 협력을 위한 플랫폼 협력 •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베드: 자율주행 실험도시 구축과 ICT 기술과 융합된 소요시설 및 장비 산업 협력

표 3 케냐 KSP 유망협력분야 및 제안 사업

스마트 농업	• 케냐 고용인구의 약 60%가 농업에 종사하나, 부가가치는 전체 GDP의 20% 수준으로 매우 낮음 • 기후, 병충해 등 변수 예측 ·통제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도입 • 이를 통해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 수출을 확대하고 GVC 참여 증진
고등교육 이러닝 확대	• 초등 무상 교육 전환으로 인해 문해율 등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고등교육에 있어서 도농, 소득수준 간 격차가 큼 •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 봉쇄 장기화에 따라 이러닝(E-learning)의 필요성 증대 • 기술, 운영, 교육 내용 측면의 기술 및 노하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KSP를 통한 경험 공유 필요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 도시화 심화, 빈부 격차 확대 등으로 슬럼화 등의 도시 문제 증가로 인해 균형 국토 발전을 위한 신도시 건설 시급 • 특히 발전된 ICT 기술 활용으로 교통, 환경, 통신을 아우르는 시범적 스마트시티 건설 가능 • EIPP 사업과의 연계로 사업 간 시너지 효과 강화
물류마스터플랜: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 몸바사항, 빅토리아 호수 등 동아프리카 물류 허브로서의 지리적 조건 보유 • 아프리카 지역을 선도하는 물류, 전력, ICT 인프라를 활용하여 물류·교통 허브로서의 역할 확대 필요 • 물류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

동향연구



신남방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시사점

'신남방국의 코로나19 대응현황'

'신남방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연구'*는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신남방 국가 대상 KSP 사업의 기획 및 추진 단계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남방 국가들의 코로나19 확산 현황과 정책 대응, 한국과의 협력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아시아는 한국 대외 협력정책의 전략적 요충지로,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한국 ODA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특히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등 한국 정부의 아세안 및 인도(이하 신남방국가)와의 협력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글로벌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아 역성장(경제성장률 -3.5%)하였으며(World Bank, 2021), 아세안은 평균 -2.5%, 인도의 경우 -8.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ADB, 2021). 코로나19로 인한 신남방국가 내 경제·사회적 위기는 신남방정책 이행에 큰 도전요인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신남방정책의 효과성과 신남방국가 KSP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협력국의 수요와 여건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월별 동향자료를 재구성
** 2020년 11월 12일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되었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한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기반 구축 및 미래산업분야 등에 대한 협력의 심화·확대하기로 함.

연구보고서는 1)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조치 현황, 2) 주요 경제·사회적 영향, 3) 긴급지원정책 및 백신 확보 및 접종 현황, 4) 한국과의 협력 현황(무역, 투자, ODA), 그리고 5) 요약 및 시사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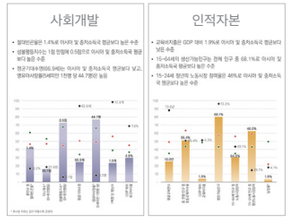
첫째, 신남방 지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은 시기별·국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으며, 신남방국가들은 코로나19의 확산 저지를 위하여 다양한 봉쇄 및 제한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외 이동이 제한되면서 대부분 국가에서 2020년 1·2분기 경제성장률 급감, 보건 위기 촉발, 빈곤과 불평등 심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한편 이러한 팬데믹의 부정적인 영향은 기초 보건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다면 그 영향력이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경제·사회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다양한 민생·금융 지원책과 백신 접종을 시행하였다. 팬데믹 전후 GDP 감소폭이 클수록 긴급지원정책 규모가 확대되는 양상이 두드러졌으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서는 미미하였다. 분석 기간 동안 신남방국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접종률 등은 국별로 상이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저조하였다.

셋째, 전년 대비 2020년의 신남방국과 한국 간 무역 및 투자 총액은 감소하고 ODA 총액은 증가하였으며, 국별·분야별 증감 추이는 상이하였다. 교역 감소는 주로 완제품 수출과 중간재 수입 규모가 큰 폭으로 하락한 데에 기인하였으며, ODA 지원 규모는 '코로나19 대응' 분야 신설로 인해 확대되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국별로 상이한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선별적인 대외협력 전략이 활용되었다. 경제협력 측면에서 한국과의 경제협력(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크게 받은 국가와 수·출입 감소가 두드러지는 품목, 투자 규모 감소가 뚜렷한 업종을 선별하였다. 개발협력 측면에서 경제적 충격이 큰 국가 중 정책대응이 미흡한 국가와 적극적인 국가를 선별하여 각각 역량 촉진형, 역량 강화형 ODA 혹은 KSP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보건 취약국에 대한 기초의료 역량 및 의료 인프라 확충 등 보건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를 강조하였다.

<참고문헌>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2021.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2021, 2021.



부문별 기초지표 현황

협력국 기초분석 조사

KDI는 효과적인 KSP 사업 기획·추진을 위해 각국의 발전 여건 및 정책 현안, KSP 추진실적 및 협력도, 부문별 기초지표, KSP 및 ODA 사업현황 등 협력국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협력국 기초조사를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20/21 KSP 협력국 기초조사는 2021년 발표된 제3기 ODA 중점협력국 해당 여부 및 대외경제전략 등을 고려하여 대상국을 전년도 52개국에서 58개국*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조사결과를 다양하게 시각화하여 독자가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새롭게 발표된 국가 발전전략과 2021년 ODA 예정사업 등 최신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료의 시의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기존 대비 2020/21 기초조사의 차별점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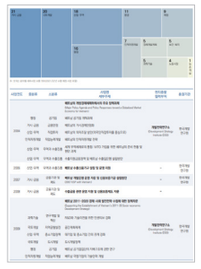
* 지역별 대상국 수: 아시아(13개국), 아프리카 및 중동(12개국), CIS 및 유럽(17개국), 중남미(16개국)

첫째, 협력국의 발전수준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부문별 기초지표**를 확대하고 시각화하여 제공하였다. 기존에는 KSP 지수를 활용하여 해당 국가의 분야별 순위를 제공함으로써 상대적 우위와 열위를 가늠할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7대 분야 46개 지표를 통해 분석 대상국의 발전 현황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주요 7대 분야를 선정하였다: 1) 사회개발, 2) 인적자본, 3) 인프라, 4) 산업·혁신, 5) 무역·통상, 6) 거시경제·재정, 7) 시장·제도. 또한, 각 지표 내 국별 점수를 백분율로 반환하여 한국 및 동일 소득군, 동일 지역 내 평균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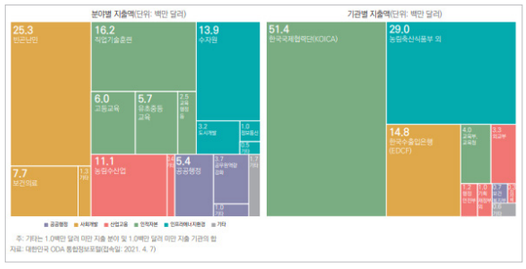
** 부문별 기초지표: 각 지표 내 국별 점수를 백분율 순위로 반환하여 상대 순위 비교

둘째, 기존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되던 ODA 및 KSP 사업정보를 시각화하여 현황 파악에 용이한 형태로 제시하였다. 협력국이 참여한 KSP 사업을 세부주제별로 분류하고 ODA 최신 사업정보를 추가하는 한편 분야별 누적 사업 수, 분야·기관별 ODA 누적지출액을 트리맵(Treemap) 그래프로 구현하였다. 이로써 독자는 한국 ODA 및 KSP가 해당 협력국에 중점 지원하는 분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최신 사업정보 등 신규 콘텐츠를 추가하고, 양식 개선을 통해 이전 자료와의 질적 차별화를 시도하고, 협력국의 정치·경제·사회·외교 등의 현황을 폭넓게 기술하였다. 먼저 협력국의 대·총선 결과,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및 국내외 분쟁 등 주요 정치·외교 현황을 조사하여 제공하였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사이 여러 협력국에서 새로운 국가 전략이 수립되었으므로 KSP 협력국의 신규 국가발전전략 문서를 수집하고 중점 분야를 파악하였다. 또한 ODA 사업 간 중복성이나 KSP 후속사업 연계 검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2021년 기준 한국 정부가 수행 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부처별 ODA 사업의 명칭, 유형, 예산 등을 제공하였다.



베트남 KSP 사업현황(2010-2021년)



대(對)케냐 ODA 지출액(2010-2019년, 총 107백만 달러)

사업명	시행부처 (기관)	유형	총사업예산 (억원)	'21년예산 (억원)	총사업기간
ICT인프라 지원 및 근린친수 센터 ICT 활용 시범 교달구축 공정지원	교육부	프로젝트	8.93	0.85	2017-2021
캄보디아 에너스타인증제도로 건설사업	기획재정부	프로젝트	705.34	39.95	2020-2024
캄보디아 기술협력센터사업	기획재정부	프로젝트	1131.94	95.17	2019-2022
캄보디아 MTI 농림업고등전문학교(프놈펜) 캠퍼스 신설지	기획재정부	프로젝트	1195.33	57.54	2021-2029
캄보디아 MTI 농림업고등전문 구축 및 교육과 개선사업	기획재정부	프로젝트	729.15	66.27	2020-2025
캄보디아 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사업	농촌진흥청	개발컨설팅	48.27	10.58	2019-2023
캄보디아 UNICEF 투르키스탄 기후변화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식수위생개선사업	외교부	프로젝트	60.5	10.08	2019-2022
캄보디아 건조지역 농촌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사업 (UN WOMEN-FAO)	외교부	프로젝트	64.38	13.72	2020-2023
캄보디아 분고와주 체육·기반에 식수개발사업	외교부	프로젝트	67.8	11.51	2019-2023
캄보디아 캄보디아 한국 직업기술교육훈련(KGT)	외교부	프로젝트	90.75	0.5	2021-2024
캄보디아 캄보디아 주 보건시스템 강화를 통한 모자보건 개선사업	외교부	프로젝트	73.21	3.46	2021-2025
캄보디아 국가산업표준인증 역량강화사업	외교부	개발컨설팅	44.9	0	2014-2021
캄보디아 농업 분야의 정책실무 역량 공무원역량강화	외교부	연수사업	5.54	1.96	2020-2022
캄보디아 KOICA-NCPC 보안시스템체계구축 및 법원사무역량 강화사업	외교부	연수사업	4.79	0.87	2021-2023
UNHCR 캄보디아 도시 지원 - 개발연계 지역공동체 기반 통합사업	외교부	프로젝트	98	35.37	2020-2023
WFP 캄보디아 캄보디아 취약지 취약계층 구호를 위한 식량지원사업	외교부	프로젝트	90	0	2019-2021

대(對)케냐 ODA 사업목록(2021년)

협력국 전자정부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KSP 사업 개선방안 연구

디지털기술 발전으로 ICT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협력국들을 대상으로 전자정부(E-Government)와 관련된 많은 ODA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협력국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맞지 않거나 정부정책의 장기·종합적인 방향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단기적 편익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성과가 미흡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전자정부 ODA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전자정부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해외 진출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KSP 전자정부 사업의 개선방안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유사 연구와 다르게 개별 전자정부 사업의 성공·실패 요인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KSP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고려 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전자정부 ODA 사업 대비 KSP 전자정부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향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와 중복을 피하고, 연구 결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정부 ODA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국내외 연구성과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자료와 고려사항을 선별하였다.

둘째, 2011년 이후 추진된 전자정부 ODA 사업 중 '시스템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하여 UN에서 제시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번호를 기준으로 사업을 선별·발췌하였다. 이후 세부 사업 분야별 특성을 파악하여 연구 결과에 반영하고, 한국 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6개 분야*를 선별하였다.

* 통합데이터센터, 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스마트시티, 조세재정, 조달시스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셋째, 전자정부 관련 KSP 사업 추진 시 사업총괄기관과 사업수행기관이 협력국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책제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KSP 사업의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전자정부 KSP 수행 프레임워크 및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KSP 수행 프레임워크 및 체크리스트'는 단순히 사업의 방향성을 진단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수행 시 점검해야 하는 내용을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주요 점검 사항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여 효율적인 사업 수행뿐만 아니라 사업의 완결성과 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정부 KSP 수행 프레임워크 흐름도



KNOWLEDGE
SHARING
PROGRAM

05

부록

• KSP 고도화 전략 요약
• 2020/21 KSP 사업 목록
• 주요 연혁

KSP 고도화 전략 요약

■ 기획재정부는 협력국 자문수요 변화 등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K-소프트파워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K-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KSP 고도화 전략"을 발표(2021.09.27,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3호 안건)

■ KSP는 한국의 성장 경험 공유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와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하였으나, 최근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

- (협력국 및 수요 변화) 협력국은 GVC 재편, 감염병 확산, 기후변화, ICT 신기술 발전 등 한국의 성장기와 다른 글로벌 환경에 직면하고 있어 보건, 그린, ICT 등 새로운 자문수요에 선제 대응이 필요하고 보호 무역주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기존 ODA 수원국뿐만 아니라 고소득국까지 협력국 범위 확대
- (개발협력사업간 연계 필요) 인프라 수요에 대한 다른 공여국과의 원조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한국의 노하우를 담은 소프트파워와 금융지원 등의 하드파워를 연계하여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자문 필요
- (탄력적 사업운영 필요) 긴 사업승인 기간으로 인해 사업 추진동력 저하 및 연속성 있는 후속 자문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협력국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제도개선·절차 간소화 필요

■ 1) 성과 가시화, 2) 글로벌화, 3) 추진체계 개선 등 3대 추진방향 아래 10개 핵심 프로젝트를 마련

1) K-소프트파워 성과 가시화

① 체계적·맞춤형 자문 주제 기획: 민간·부처 사업 제안제, 한국 강점 분야 제안
② 다년도·대규모 자문: 다년도(2~3년), 대규모(10억 이상)의 KSP Plus 사업유형 신설
③ 후속사업화 지원: 국내기업 진출과 연계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 KSP 정책자문을 통해 후속사업 발굴 및 자금조달 EDCF, 국제기구 신탁기금 연계
④ 성과 평가·환류 체계 구축: 협력국 만족도, 정책 반영도 등을 토대로 우수 수행기관 선정 및 사후평가 실시

2) K-소프트파워 글로벌화

⑤ 협력국·국제금융기구 참여 확대: 비ODA 국가까지 협력범위 확대, 다자개발은행(MDB) 등 국제금융기구의 자문 참여 등 역할 확대
⑥ 효율적 자문 전달체계 구축: 표준자문 보고서 개발("KSP 모듈화 2.0"), 웹사이트 개편
⑦ 적극적 아웃리치: KSP 인턴십 추진, 성과공유 콘퍼런스 확대, 초청연수 내실화, 글로벌지식협력단지 활용

3) K-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추진체계 개선

⑧ 탄력적 사업 추진 기반 마련: 협력국 수요 적기 충족 및 사업추진 동력 제고를 위해 긴급요청사업 확대
⑨ 다른 지식공유 사업과의 연계: 범부처 차원의 지식협력 시너지 효과를 위해 다른 지식공유 사업과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⑩ KSP 거버넌스 개선: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추진협의회, 실무협의회 등 실질적인 논의기구 운용

K-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KSP 고도화 전략

비 전

K-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상생형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목 표

협력국의 역량 개발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
발전경험전수 위주 →
협력국 수요 + 한국의 강점 新분야 중심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등 경제협력의 마중물 역할
정책자문 위주 →
해외 진출과 연계한 프로젝트 자문 강화

3대 추진방향

1 K-소프트파워 성과 가시화	2 K-소프트파워 글로벌화	3 K-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추진체계 개선
• 체계적·맞춤형 자문 주제 기획	• 협력국·국제금융기구 참여 확대	• 탄력적 사업 추진 기반 마련
• 다년도·대규모 자문	• 효율적 자문 전달체계 구축	• 他 지식공유 사업과의 연계
• 후속사업화 지원	• 적극적 아웃리치	• KSP 거버넌스 개선
• 성과 평가·환류 체계 구축		

10대 핵심 프로젝트

① 민간·정부부처 사업제안제 도입	⑤ 非ODA 자문 비중 확대	⑧ 협력국 긴급요청 사업 확대
② KSP Plus 신설	⑥ KSP 모듈화 2.0 시행	⑨ 지식공유 대표 플랫폼化
③ EDCF·국제기구 신탁기금 연계	⑦ KSP 인턴십 신설	⑩ 지식공유사업법(가칭) 제정
④ 우수 수행기관 인증제 시행		

2020/21 KSP 사업 목록

사업 유형
- 양자: 한국과 협력국 정부 간(G2G) 양자 협력 방식의 정책자문 사업
- 공동컨설팅: 국제기구와 연계한 삼각 협력 방식의 공동컨설팅 사업(사업명 앞 괄호: 해당 국제기구)

아시아

연번	유형	협력국	사업명	협력부처
1	양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 강화	보건부
2	양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 강화	국가개발기획부
3	양자	몽골	몽골 도로교통 부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도로교통개발부
4	양자	몽골	몽골 지속가능한 철도분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도로교통개발부
5	양자	몽골	몽골 물류 및 운송체계 효율화를 위한 전략 수립	도로교통개발부
6	양자	미얀마	미얀마 마이크로파이낸스 발전방안: 법률 개정 및 감독역량 제고를 중심으로	기획재정산업부
7	양자	베트남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 시스템 도입 마련	재무부
8	양자	베트남	베트남 포괄적 국토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한국의 경험 공유	기획투자부, 개발전략연구원
9	양자	베트남	2021-2030년 베트남 균형발전 정책 수립 지원 사업	기획투자부
10	양자	파키스탄	파키스탄 중소기업 발전 및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 방안	중소기업개발청
11	양자	필리핀	필리핀 공공조달 입찰담합 정보 수집 및 적발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방안	경쟁위원회
12	양자	MRC	메콩강위원회(MRC) 메콩강 유역 홍수·가뭄 관리 및 예보 개선방안	메콩강위원회
13	공동	동티모르	(ADB) 동티모르 에너지 시스템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구축사업 지원	공공사업부
14	공동	베트남	(ADB) 베트남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정책 개선	통계청

중앙아시아 · 유럽

연번	유형	협력국	사업명	협력부처
1	양자	루마니아	루마니아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화 방안	경제기업관광부
2	양자	벨라루스	벨라루스 관세청의 업무 효율화 증진 방안	관세청
3	양자	벨라루스	벨라루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방안(phase Ⅱ): 기계·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부
4	양자	세르비아	세르비아 세무행정 체계화를 통한 조세정책 역량 강화	국세청
5	양자	알바니아	알바니아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한 천연가스 확대 방안	인프라에너지부
6	양자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자조달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체계 정비	경제개발무역부
7	양자	헝가리	헝가리 조세납부 지원을 위한 디지털화 방안	국세청
8	공동	루마니아	(EBRD) 루마니아 브라쇼브市 응급병원 건립 지원	보건부
9	공동	우즈베키스탄	(ADB) 우즈베키스탄 지속가능한 고체폐기물 관리	생태 및 환경보전위원회
10	공동	조지아	(EBRD) 조지아 국가해양개발계획 수립 지원	해상교통청

중남미

연번	유형	협력국	사업명	협력부처
1	양자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자유지역 전자제품 제조업 발전 방안	수출자유지역관리위원회
2	양자	멕시코	멕시코 공공조달시스템 디지털화를 위한 전략 수립	재무공공신용부, 국립과학기술원
3	양자	멕시코	멕시코 자연보호구역 보존을 위한 하수 관리 정책 개선	국가자연보호구역위원회
4	양자	브라질	브라질 국가과학기술혁신(STI)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거버넌스 개선 방안	과학기술혁신부
5	양자	브라질	브라질 니테로이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	니테로이 시(市)정부
6	양자	에콰도르	에콰도르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비 역량강화 방안	에콰도르 공공보건부
7	양자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주민등록시스템 개선 방안	엘살바도르 대통령 직속 국가혁신실, 주민등록청
8	양자	우루과이	우루과이 산업재산권 자동화시스템 리엔지니어링 지원 방안	국가산업재산청
9	양자	콜롬비아	콜롬비아 중소기업 혁신정책 수립 및 이행방안	국가기획부
10	양자	쿠바	쿠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경험 교류	농업공학연구소
11	양자	파라과이	파라과이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획 수립	공공보건사회복지부
12	양자	페루	페루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개혁 거버넌스 구축 방안	국가인사처
13	공동	과테말라	(CABEI) 과테말라 화물수송 철도체계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철도청
14	공동	엘살바도르	(IDB) 엘살바도르 기술혁신을 활용한 교육관리정보시스템(EMIS) 개선 지원	교육부
15	공동	온두라스	(IDB) 온두라스 라세이바市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 수립	온두라스 대통령실
16	공동	코스타리카	(IDB) 코스타리카 과학기술혁신(STI) 기관 설립 전략 수립 지원 사업	과학기술통신부
17	공동	코스타리카	(ITC) 코스타리카 공공조달 생태계 활성화 및 조직변화 역량강화 지원	재무부
18	공동	파나마	(IDB) 파나마 원주민지역 전력공급을 위한 소형전력망 시스템 구축 지원	공공사업부
19	공동	파라과이	(IDB) 파라과이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시스템 구축 및 개발	정보통신부

아프리카

연번	유형	협력국	사업명	협력부처
1	양자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농업 공급사슬 진단 및 개선 방안	농업부
2	양자	모잠비크	모잠비크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비 역량강화 방안	보건부
3	양자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시스템 구축 지원	보건부
4	양자	이집트	이집트 전자공학분야 과학기술단지(STPERI) 운영 전략 수립	고등교육과학연구부, 전자공학연구원
5	양자	케냐	케냐 나이로비 대도시권 교통관리센터의 통합적 운영 방안	케냐도시도로청
6	양자	케냐	케냐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관리 방안	콘자테크노시티개발청
7	공동	토고	(AfDB) 토고 세입예측모형 개발 및 국세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국세청

주요 연혁

KSP는 국제사회의 수요와 평판에 힘입어 협력 범위가 확대되고 사업모델이 다양해졌다.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 정책 자문 내용이 협력국 제도 개선과 후속사업으로 연계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2021

- 'K-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KSP 고도화 전략' 발표(대외경제장관 회의)
- 우즈베키스탄 국립의료복합단지 설립 사업(EDCF) 연계
- '벨라루스 2021-2025 국가 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 및 스마트 산업 디지털 플랫폼 개설

2020

-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출범(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 케냐 콘자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EDCF) 연계
- 세르비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협력센터 공동협력과제 연계

2019

-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 사업 연계
- 루마니아 생산성연구센터 설립

2018

- 글로벌지식협력단지(GKEDC) 개관
- 케냐 지능형 교통 체계 개선사업 (EDCF) 연계
- 스리랑카 중등교육분야 ICT 허브 구축 사업(EDCF) 연계



2017

- 'KSP 2.0 발전방안' 발표 (대외경제장관회의, 신흥국 경제협력 지원)
-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 지원 KOICA 사업 연계
- 카자흐스탄 주택보증제도 개선

2016

- 범부처 협력사업 도입
- 멕시코 산학협력센터(CAI) 설립
- UAE 특허 시스템 수출



2015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 「KSP 10년사」 발간
- 다자협의체 대상 정책자문사업 시작 (비세그라드그룹(V4))
- 미얀마개발연구원 설립사업 (KOICA) 연계
- 니카라과 브로드밴드 구축사업 (EDCF-IDB 협조융자) 연계

2014

- 분야별 추진 체계 개편 (경제, 산업·무역, 건설·인프라)
- 이집트 나가 힘디-룩소르 철도 전자연동 시스템 구축사업(EDCF-WB 협조융자) 연계

2013

- 시스템 컨설팅사업 시작 (2013-2016년, 25건 수행)
- OECD 지식공유연대(KSA) 출범
-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단지 역량 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사업 (KOICA) 연계



2012

- 정책자문관 파견제도 도입
- 제1회 지역별 세미나 개최 (동유럽, 아시아, 중남미)
- 한-WB KSP 지식공유 포럼
- KSP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 도입 (Young KSPians, 2012-2017년)
- 인도네시아 반둥 상수도 시스템 구축 사업(KOICA) 연계



2011

- 공동컨설팅사업 시작 (WB, ADB, IDB, UN-APCICT)
- 수석고문제도 도입
- 'KSP 발전방안' 발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베트남 2011-2020 경제사회 발전 전략' 채택

2010

- 발전경험 모듈화사업 시작 (2010-2015년, 148건 수행)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2009

- KSP, 국가브랜드 사업 선정 ('한국과 함께하는 경제발전')
- 중점지원사업 시행
- 도미니카공화국 배전망 현대화사업 (IDB) 연계 및 국내 기업 수주



2008

-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경제특구 설립

2007

- KSP 협력지역 확대 (고소득국, 신흥국 등)

2006

- 제1회 성과 전파 세미나 개최 (현 성과 공유 콘퍼런스)
- 베트남 수출신용기구 설립

2004

- 양자 정책자문사업 시작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